

현안연구

2022

#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ltural  
Policy Measures for Social  
Healing : Focusing on  
Alleviate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정보람 · 윤소영 · 이성우



---

#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ltural Policy Measures for Social Healing  
: Focusing on Alleviate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

정보람, 윤소영, 이성우



## 연구책임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차

<b>제1장</b>	<b>서론 .....</b>	<b>1</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4
<b>제2장</b>	<b>이론적 개념 및 실태분석 .....</b>	<b>5</b>
	제1절 이론적 개념	7
	1.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정의	7
	2.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의 영향	8
	3.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발생원인	9
	제2절 한국사회 특징 및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실태	10
	1. 한국사회의 특징	10
	2. 한국인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실태	12
<b>제3장</b>	<b>국외사례 분석 .....</b>	<b>15</b>
	제1절 영국	17
	1.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 논의배경	17
	2.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체계	18
	3.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 주요내용	21
	제2절 일본	25
	1.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 논의배경	25

2.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체계	26
3.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 주요내용	28
제3절 시사점	31
1. 외로움·사회적고립감을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	31
2. 국가정책 전반에 외로움·사회적고립감 성과관리	31
3. 외로움·사회적고립감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설계	32
<b>제4장            국내정책 진단 및 외로움·고립감 대응 문화정책방안 .....</b>	<b>33</b>
제1절 외로움·사회적 고립 대응정책 현황	35
1. 정신질환 치료(Treatment)	35
2. 정신건강 돌봄(Care)	38
3. 정신건강 치유(Healing)	45
제2절 외로움·고립감 대응 국내정책 진단	53
1. 종합분석	53
2. 치료 : 특정대상 중심, 외로움을 다양한 문제의 원인으로만 규명	54
3. 돌봄 :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불충족	55
4. 치유 : 개별사업 중심, 통합·연계 성과관리 부재	55
제3절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응 문화정책방안	57
1.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57
2. 문화예술기반 외로움·고립감 치유인력 관리	59
3.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의 외로움·고립감 성과관리	60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62
<b>참고문헌 .....</b>	<b>63</b>



# 표 목 차

〈표 2-1〉 BLI 11개 영역별 한국 수준(2019년 혹은 최근 데이터 기준)	10
〈표 3-1〉 영국 DCMS 조직 구조	19
〈표 3-2〉 각 부처별 역할 분담 주요내용	20
〈표 3-3〉 외로움 측정 지표	22
〈표 3-4〉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비용	23
〈표 3-5〉 고독·고립 대응관련 부처별 정책내용	26
〈표 4-1〉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	36
〈표 4-2〉 외로움·사회적고립 해소를 위한 지자체 조례 현황	39
〈표 4-3〉 가족센터의 영역별 수행사업 내용	43
〈표 4-4〉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치료 자격관리 현황	44
〈표 4-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요	45
〈표 4-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업 목표수혜자(2022년)	45
〈표 4-7〉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2022~2027) 중 위로와 공감을 위한 정책내용	46
〈표 4-8〉 산림치유사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49
〈표 4-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	51
〈표 4-10〉 외로움·고립감 대응 국내정책 유형화	53
〈표 4-11〉 법정 치유프로그램의 구성요소(콘텐츠)	58
〈표 4-12〉 외로움 및 사회적고립 관련 조례제정 지자체 현황	58
〈표 4-13〉 문화적 개입을 통한 건강증진 영역(예방 및 치료)	60
〈표 4-14〉 문화예술 활동과 외로움, 사회적고립, 웰빙 간의 관계 주요 지표(DCMS 사례)	61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4
[그림 2-1] 외로움·사회적 고립 유형구분	8
[그림 2-2] OECD 국가별 사회적 연결 수준(2019년 혹은 최근 데이터 기준)	11
[그림 2-3] 여가활동 동반자 및 여가만족도	12
[그림 2-4] 연령대 및 성별 우울감 추이	13
[그림 3-1]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캠페인 로고	23
[그림 4-1]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35
[그림 4-2]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36
[그림 4-3] 정신건강전문요원 연간 배출 현황(2019년)	37
[그림 4-4]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업추진체계	46
[그림 4-5] 산림치유 개념	48
[그림 4-6] 치유농업 개념	50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사회적 연결 약화에 따른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겪고 있으나, 외로움 논의·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은 부재
  - (사회적 관계) '20년 OECD 'Better Life Index' 중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40개 국가 중 40위)
  - (사회적 소통) 국민의 1일 평균 교제 활동 참여 시간은 '14년 대비 14분 감소('14년 1시간 13분 → '19년 59분)하는 등 사회적 소통 약화
  - (비대면 확산) 코로나19 지속으로 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는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
-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서적·정신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하는 등의 쟁점에 대응하여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 연구에서 사회적 치유(Healing)는 환경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웰빙(Well-being) 보다 지속적인 차원에서 생활의 긍정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개념을 의미함
  - 특히 고독감,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계단절과 같은 사회적 고립(isolation) 문제로써 바라보며, 국가적 차원의 예방과 완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2. 연구목적

- 외로움·사회적고립감 개념 및 한국사회 실태 검토
- 영국, 일본의 외로움·사회적고립 대응 정책 사례 분석
- 국내 외로움·고립감 완화를 위한 정책영역 분석
-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문화예술기반 외로움·사회적고립 해소 정책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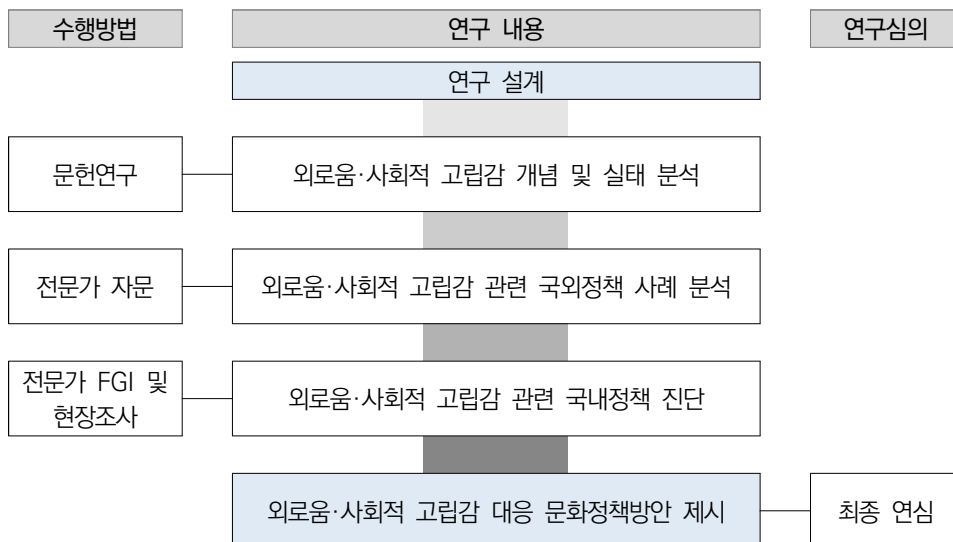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대상적 범위) 사회적 고립(isolation) 관련 국가단위 정책 국외사례 및 국내 정책(복지·건강 등) 현황
  - 영국 DCMS의 외로움 장관 겸직, 일본 고독·고립대책담당실 설치 등 국가단위 정책사례
  - 국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의 관련정책 현황
- (내용적 범위) 사회적 고립(주관적, 객관적) 해소 관련 정책 분석 및 정책 사각지대 발굴

### 2. 연구방법

- (문헌분석) 사회적 고립, 외로움 관련 선행연구, 국외 정책발표 보고서, 국내 정책발표 자료 및 사업설명자료 등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전문가 FGI 및 관계자 인터뷰)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적 고립 관련 전문가 그룹 FGI와 관련정책 현장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방안 논의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

## 제2장

# 이론적 개념 및 실태분석





## 제1절 이론적 개념

### 1.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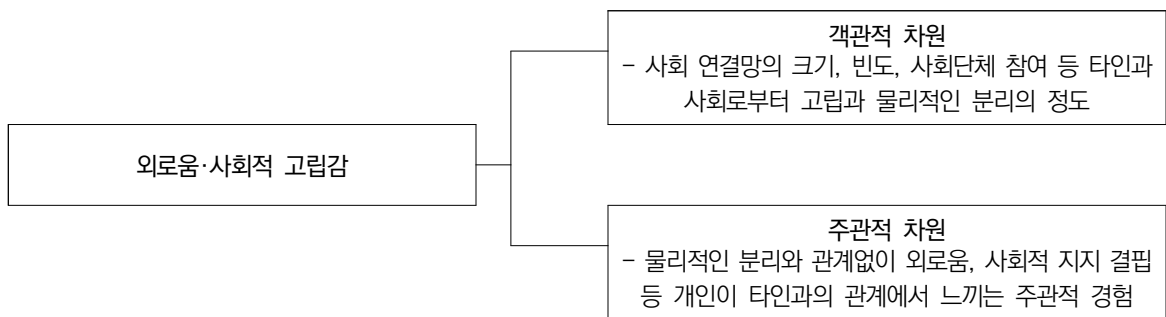
#### 1)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 인간 삶의 본질적이고도 유기적인 실체

- 모든 인간은 삶의 시작과 마지막 순간에 혼자이고 불가피하게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은 삶의 본질적이고도 유기적인 실체라 할 수 있고 참고 견딜수밖에 없는 현상임 (Moustakas, 1961, Killeen, 1998),
- 외로움은 일반적으로 고통, 공허함, 비어 있음, 슬프고 쓸쓸함, 분리되는 느낌, 지루함 등으로 표상되며 (Mikulincer & Segal, 1990; Rubenstein & Shaver, 1982), 고독, 소외, 고립, 관계 불만족 등 유사 개념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함
  - 외로움(loneliness)을 고독감(solitude)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음(Choi, & Lee, 2016; Galanaki, 2004; Goossens & Beyers, 2002)

#### 2)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객관적 차원 vs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적인 지각인 주관적 차원

- 외로움(Loneliness)과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로의 영역의 하부에 개념을 포함시키거나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있음
  - Perlman & Peplau(1981)는 외로움을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세가지 특징을 사회적 관계의 부족, 객관적인 고립과 구분된 주관적인 현상, 불쾌하고 괴로운 경험으로 정리하였음
  - Weiss(1973)는 사회적 욕구에 기초하여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으로 구분하였고, 그 원인을 애착, 사회적 통합, 양육, 가치의 재확인, 의지할 수 있다는 감각, 문제적 상황에 대한 도움 등 6가지 관계적 기능의 부족으로 보았음
  - Wang 등(2017)은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외로움(lonelines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사회적 자원(social capital),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confiding relationship) 등으로 구분하였음

- 종합하면 객관적 차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또는 접촉빈도 등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정도이고, 주관적 차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지각(perception)으로 정리됨
  - 객관적 차원은 사회적 단절(social disconnectedness)로 불리기도 하며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의 정도로 정의됨
  - 주관적 차원은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으로 불리기도 하며, 물리적인 분리와 관계없이 외로움, 사회적 지지 결핍,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함(Cornwell & Waite, 2009)



[그림 2-1] 외로움·사회적 고립 유형구분

## 2.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의 영향

### 1) 신체적 건강(감염, 질병, 고혈압, 음주 등) 악화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 모두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Calati et al., 2019), 실제로 높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며(Beller & Wagner, 2018), 우울, 낮은 수면의 질과 상관성을 보였으며, 심혈관계의 문제, 인지 능력의 저하 등과도 연관되어 있음(Hawkey & Capitano, 2015)
  - 수면장애(Cacioppo, Hawkey, Berntson, Ernst, Gibbs, Stickgold, & Hobson, 2002), 섭식장애 (Levine, 2012), 면역력 저하(Pressman, Cohen, Miller, Barkin, Rabin, & Treanor, 2005), 조기 사망률 증가(Holt-Lunstad, Smith, Baker, Harris, & Stephenson, 2015) 등 신체적 건강을 위협

### 2) 정신적 건강(우울증, 인지감퇴 등) 악화

- 우울(Horowitz, French, & Anderson, 1982), 불안(Wei, Russell, & Zakalik, 2005), 죄책감(Sermat, 1980), 절망(Rubenstein & Shaver, 1982), 자기비하(Rubenstein & Shaver, 1982) 등 심리적 건강 악화와 연관되어 있음

- 정신적 건강 약화는 자존감(Peplau, Miceli, & Morasch, 1982)과 삶의 만족도(Goodwin, Cook, & Yung, 2001)를 낮추고, 삶의 의미를 잃게 함(Stillman, Baumeister, Lambert, Crescioni, DeWall, & Fincham, 2009)

### 3) 정서적 결핍뿐만 아니라 기회(직업, 서비스, 물질 등)에 접근을 제한 =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와 관계의 질은 웰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 또는 커뮤니티는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 서비스 및 기타 물질적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
- 약한 소셜 네트워크는 제한된 경제적 기회, 다른 사람과의 접촉 부족, 결국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은 가족 붕괴, 실직, 질병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
-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개인은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재통합될 뿐만 아니라 직장,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3.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발생원인

### 1) 삶의 과정과 맥락에 대한 문제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1970년대 이후 특수한 임상적인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나(Wang & Dong, 2018), 최근 연구에서는 개념화하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이들을 병리학적 측면보다는 삶의 과정과 맥락에 맞추어 외로움을 설명하고 있음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적 관계망 자체가 부족한 객관적인 고립 상태뿐 아니라 주관적 경험과 지각상태에 의해 발생하고, 삶의 과정에서 복합적인 현상으로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결핍과 같은 병리학적 측면보다는 생애주기별 특징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발전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병리적 문제가 아닌 삶의 의미와 인간관계에서 관계 맺기의 문제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이 중요하고 치료보다는 예방과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2) 생애초기 불안애착 및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불일치

- Bowlby(1973)으로부터 시작된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 근거하여 분석한 외로움 원인은 아동이 발달 초기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외로움을 경험하고 점차 강화되어, 친구나 연인 및 배우자로 애착 대상이 바뀔 수 있으나 애착대상의 상실과 부재를 고통스러워하여 외로움에 쉽게 노출됨
- Peplau와 Perlman(1982)으로부터 시작된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에 따르면, 인간은 현재의 대인관계 상황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실제 관계에 충족되는 정도의 간극인 인지적 불일치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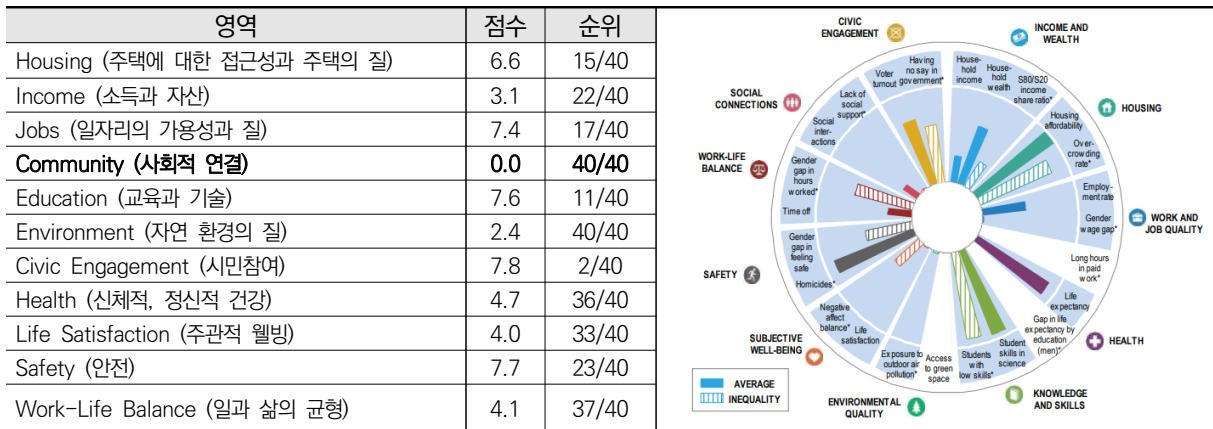
## 제2절 한국사회 특징 및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실태

### 1. 한국사회의 특징

#### 1) 한국, 사회적 연결감 OECD 최하위 수준

- 국가 간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OECD, better life index(BLI)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한국(5.9)은 OECD 평균(6.5)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40개 국가 중 30위에 해당되는데, 특징적인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은 시민 참여(투표율)는 40개 국가 중 2위이지만 사회적 연결과 환경의 질은 OECD 국가최하위임
- 한국은 주택, 시민 참여, 교육 및 기술, 직업 및 소득, 개인 보안에서 평균보다 높지만 소득 및 자산, 주관적 웰빙, 환경의 질, 건강 상태, 사회적 연결, 일과 삶의 균형에서 평균 이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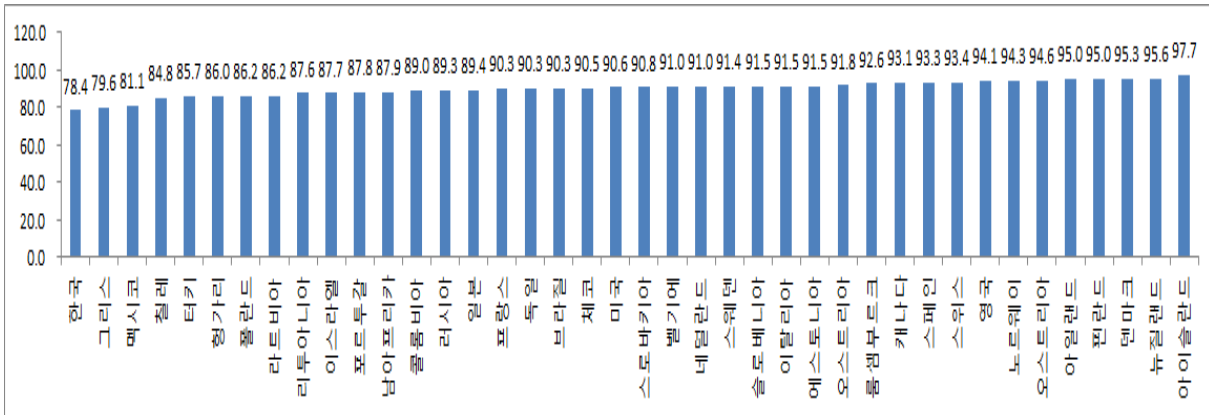
〈표 2-1〉 BLI 11개 영역별 한국 수준(2019년 혹은 최근 데이터 기준)



자료: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 사회적 연결 지표가 최하위 수준으로(40개국 중 40위) 나타난 원인은 한국인의 78.4%만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응답하였고 이것이 OECD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인데, OECD 국가 평균은 89%임

- OECD의 89%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남성의 88% 여성의 90%가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남녀 차이 거의 없음)



[그림 2-2] OECD 국가별 사회적 연결 수준(2019년 혹은 최근 데이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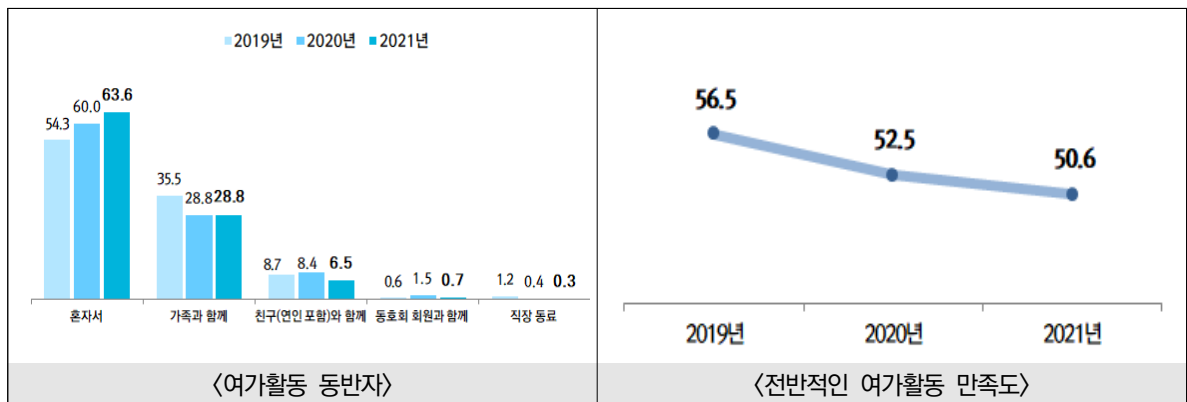
## 2) 한국사회의 외로움, 사회적고립 수준 심각

- 2021년 2월에 발표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글로벌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서방 국가인 영국 34%, 캐나다·미국 31%, 독일 26%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은 전체 응답자 중 3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해 28개의 조사 대상 국가 중 9위를 기록하였음
-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한국의 대학생은 미국의 대학생보다, 한국의 노인은 일본의 노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Simmons, Klopf, & Park, 1991; Kim, Byeon, Kim, Endo, Akahoshi, & Ogasawara, 2009)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2018년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고독지수'는 100점 중 7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진단하였으며, '고독함이 정신적 문제 및 사회문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응답하였음
- 최근 Kim et al.(2021)의 연구에서(한국 3개 주요 도시의 1,700명 표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고립감은 남성은 여성보다 44% 취약하고, 외로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51%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친구나 가족관계가 미약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사별, 이혼, 별거, 교육 및 재정수준 등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음
- 서영석 외(2020)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강하게 경험되거나 의미있게 나타나는 특성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①집단에 대한 외로움(학연, 지연, 혈연 등 연결고리 중시), ②타인지향적 외로움(타인의 삶이나 사회적 기준과 비교), ③융합에서의 외로움(다른사람과 하나, 동일한 객체로 여김) 등임

## 2. 한국인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실태

### 1) 객관적 차원 :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교류 감소

-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16년 539만여 가구에서 2020년 664만 3354가구로 증가하여, 전체 1인가구 비중이 31.7%를 기록하였음
  - 1인 가구는 지역별로 주력 연령대가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데, 수도권, 세종시와 일부 광역시 등에는 젊은층의 1인 가구가 많고 농어촌 지역인 도 단위에는 고령층의 1인가구가 많음
-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2020년 사회적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2.2%,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53.6%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고(1.7%, 48.2%),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을 혼자서 하는 비중은 2019년 54.3%에서 2021년 63.6%로 증가하였고, 사회적 대면 관계활동이 줄자 전반적인 여가만족도는 2019년 56.5%에서 2021년 50.6%로 하락 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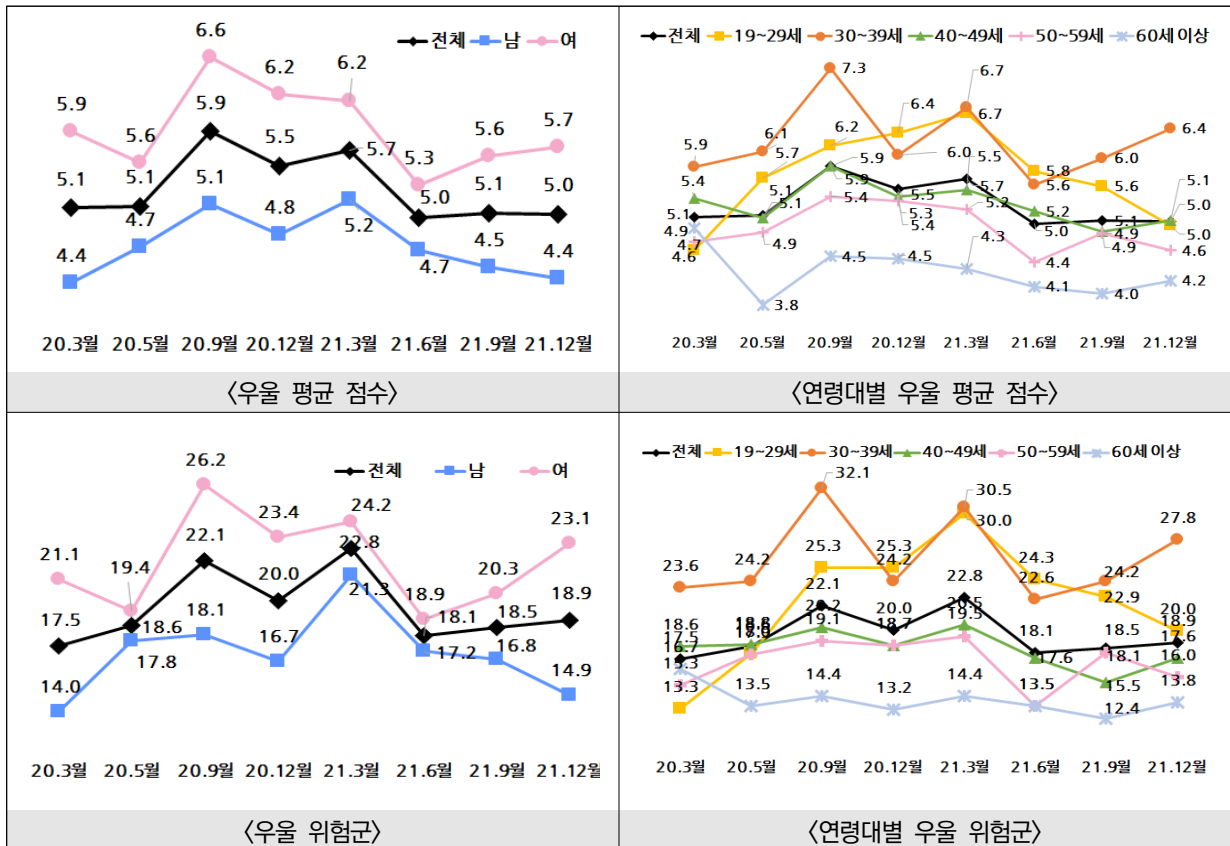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림 2-3] 여가활동 동반자 및 여가만족도

### 2) 주관적 차원 :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낮은 지각, 정서적 결핍감 심화

- 보건복지부의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이고, 코로나19 발생 초기(2020년 3월)와 비교할 때 2021년 12월 기준 우울점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여성, 3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1)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음



주: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그림 2-4] 연령대 및 성별 우울감 추이

- 또한 한국행정연구원(2022)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몸이 아픈 경우, 우울한 경우 모두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음
  - 몸이 아픈 경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2021년 5.1%로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4.5%로 전년에 비해 3.1%p 감소했으며 역시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임
  - 대체로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음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

## 제3장

# 국외사례 분석



## 제1절 영국

### 1.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 논의배경

#### 1)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부상

- 영국사회는 외로움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다양한 연구기관 및 비영리재단에서 외로움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강조하였음
  - 영국 신경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은 외로움으로 인한 결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영국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연간 25억 파운드 추정
  - 영국 적십자사(British Red Cross)는 9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영국 아동지원센터(Action for Children)는 과반수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시 외로움에 따른 문제를 겪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 또한 매우 빈번한 것으로 발표
  - 비영리단체인 외로움 끝내기 캠페인(Campaign to End Loneliness)에 따르면 2013년 실시된 조사에서 영국 일반의(General Practice) 4명 중 3명이 하루에 진료하는 1~5명의 환자가 외로움 때문에 방문한다고 응답
- 조 콕스 외로움대책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이하 조 콕스 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로움을 정책 문제로 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조 콕스 위원회는 외로움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17년 ‘외로움 퇴치에 관한 행동 촉구 보고서(Combat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 발표하였음
  - 조 콕스 위원회 보고서는 외로움이 노인과 같은 특정 연령층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등 전 국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임을 밝힘
  - 또한 외로움 퇴치를 주요 직무로 하는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국가적 리더십을 세울 것, 외로움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실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것, 기금을 만들어 혁신적 실행을 추진할 것,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협업할 것 등을 촉구

- 조 콕스 위원회 보고서는 외로움에 대한 대응이 개인과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기업, 자선단체, 정부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외로움을 국가적 수준에서 대응해야 할 정책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켰음

## 2) 2018년, 영국정부는 전 세계 최초로 외로움 퇴치 전략을 발표

- 2018년 10월, 테레사메이(Theresa May) 총리는 조 콕스 의원 최종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로움에 대한 차관급 리더십을 구축하였고, 연결사회: 외로움 대처 전략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er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을 발표하였음
  - 영국 성인의 5~18%가 자주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거부당했다고 느낄 때 육체적 고통을 경험할 때와 유사하게 뇌가 반응함
  - 외로움(loneliness)을 고독(solitude),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구분하고, 일시적으로 느끼는 외로운 감정이 아닌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해있음에도 느끼는 만성적인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설정
  -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써 외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주관적 감정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핍감, 동료애의 상실감”으로 정의

## 2.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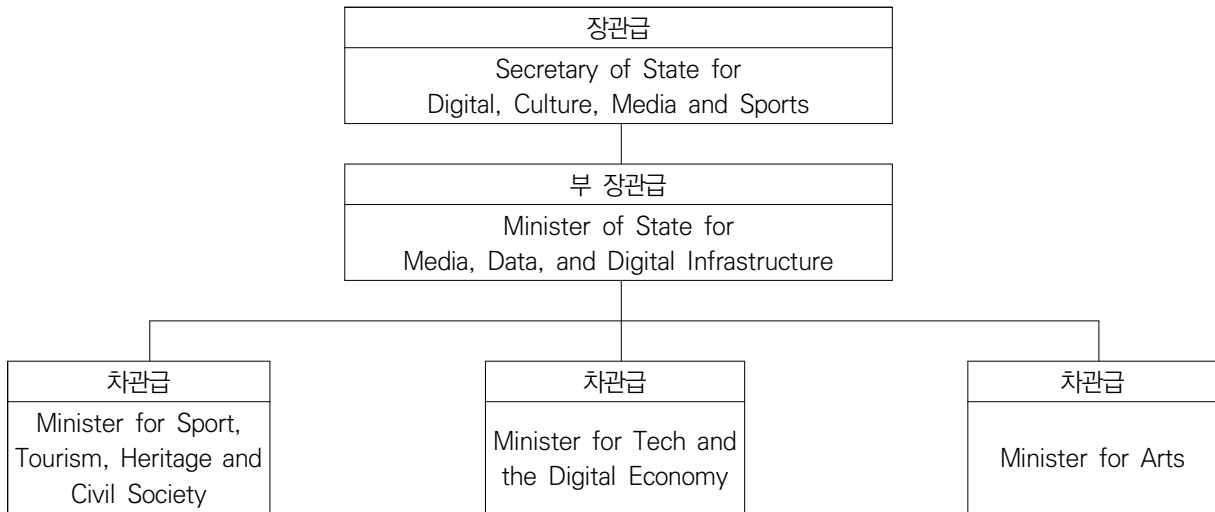
### 1) 국민의 외로움 문제를 전담하는 외로움 차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DCMS 차관 겸직)

- 외로움 정책을 전담하도록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CMS)를 주관부처로 지명하고, DCMS 내 스포츠·관광·문화유산·시민사회 차관(Minister for Sport, Tourism, Heritage and Civil Society)을 외로움 차관(Minister for Loneliness)<sup>2)</sup>으로 겸직하도록 임명
- 외로움 대처 전략의 실행을 DCMS 내 시민사회와 청소년부서가 주관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문제로서 외로움을 약물이 아닌 사람간의 소통, 지역사회와 개인의 촘촘한 연결 및 관계망 회복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영국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 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외로움 대처 전략 실행을 주관하는 시민사회와 청소년부(Civil Society and Youth Directorate)는

2)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는 <표 3-1>와 같이 장관, 부장관, 3명의 차관으로 구성되기에 'minister for loneliness' 는 외로움 장관 이 아닌 외로움 차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 조직구조상 장관은 'secretary of state', 부장관은 'minister of state' 차관은 'minister'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원래 국무실(Cabinet Office) 소속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 이였으나, 2017년 내각 개편에 따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 소속으로 이관 됨

〈표 3-1〉 영국 DCMS 조직 구조



## 2) DCMS 주도로 9개 정부부처 협업 범정부 계획 수립

- DCMS 주도로 9개 정부부처 협업<sup>3)</sup>하여 추진되는 범정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연결사회: 외로움 대처 전략), 크게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①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②국가정책 전반에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고려, ③외로움에 대한 근거기반 개선 및 사례 발굴 등임
  - (목표1)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돌보고 이것이 웰빙의 핵심이라는 것을 널리 확산시킴
  - (목표2) 범국가적 정책결정 및 전달에서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조직 지원을 확대하여 삶의 특정 트리거로 더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맞춤형 개입과 함께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고자 교차 정책을 추진
  - (목표3) 외로움에 대한 증거기반을 개선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근거기반 정책 결정을 추진하도록 정보기반을 구축
- 국가정책 전반에 외로움 정책이 투영되도록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DCMS)는 외로움 정책실행 근거확보 및 평가를 담당하고, 통계청, 보건사회복지부(국립보건의서비스), 교육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교통부, 이민국, 국립 우체국,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국 간 협업 계획을 수립

3)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기업,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 교육부, 환경식품농촌부, 보건사회복지부, 교통부, 고용연금부, 내무부, 주택, 커뮤니티 및 지방 자치 단체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국립보건서비스 잉글랜드(NHS England),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와 협업하여 더 많은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조직들이 사회적 처방 사업 실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
- 영국 이민청(home office), 우체국(Royal office)과 협업하여 영국령 저지섬에서 시작된 우편부들의 외로운 노인 돌봄 서비스 'call and check' 가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함

〈표 3-2〉 각 부처별 역할 분담 주요내용

소관 부처	주요 추진 사업 내용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영국예술위 사업들이 외로움 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외로움 퇴치와 관련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증대
통계청	외로움 수치, 원인,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지원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더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사회적 웰빙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사회복지부, 국립보건서비스	국립보건의료서비스 장기계획에 외로움 퇴치 전략을 반영하고, '사회적 처방' 사업 실행 개선 및 확대
이민국, 국립 우체국	특정지역 내 우편부들이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했던 돌봄 서비스인 'call and check' 사례를 바탕으로 돌봄과 관련된 시범 사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확대
교통부	잉글랜드 지역내 7개 모빌리티 센터가 외로움이나 사회적 연결 부족의 신호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제고 등 교통 계획 수립시 외로움 퇴치를 적극 고려
교육부	지역사회내에서 학교가 접근 가능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수립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국	주거 계획 수립시 외로움 퇴치를 주요 의제로 고려

자료: UK Government(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3) 외로움 예방에 초점, 사회적 연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설정

- 연결사회: 외로움 대처 전략 계획은 외로움이 심각한 건강 악화 및 기타 부정적인 결과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로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데 중점 관심을 갖고 있음
  - 2023년까지 국립보건서비스와 함께 '사회적 처방' 사업 실행 주요 주체인 커뮤니티 커넥터(community connector)들이 영국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모범 사례와 평가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화 계획함
- 주로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지자체, 기업, 보건 및 자원봉사 영역,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연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중요 사례를 제공함
-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국가정책(조치)의 효과, 증거기반 개발함으로써 외로움에 대한 명확한 정부전략을 확립하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점이 특징적임
- 현재 런던을 포함하는 잉글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실행 중이며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 아일랜드 자치 지역은 각각 독자적인 외로움 대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는 2018년, 웨일스와 북 아일랜드는 2020년 각각 관련 전략을 수립(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 3.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 주요내용

- 1) 외로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결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 조성 및 예산편성 확대
  - 외로움 해소를 위해 최초로 정부가 '사회적 연결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을 조성하였고, 해당 기금은 외로움 퇴치를 위해 국립 복권기금과 협동조합 공동체 투자 재단(Co-op foundation)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약 183억원(1,150만 파운드) 규모임
    - 2018년 기준 잉글랜드 지역 내 126개 단체에게 약 4,800만원~1억 6천만원(3만~10만 파운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22개 단체는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였음(UK Government, 2020)
    - 기금 중 약 88억 원(550만 파운드)을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교육부,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국, 교통부, 주거국, 환경식품농무부, 노동연금부,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집행하였음(UK government, 2020)
  -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화되자, 외로움 해소 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DCMS는 2020년 말 외로움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예술, 도서관, 자선사업, 라디오를 통해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약 120억 원(750만 파운드)의 추가예산 편성하였음(DCMS, 2020)
    - 500만 파운드(약 80억 원)는 예술 및 도서관 지원을 위해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350만 파운드(약 56억 원)는 자선단체 '리딩 에이전시(The Reading Agency)'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도서관이 관련 도서 구입, 독서모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외로움 대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200만 파운드(약 32억 원)는 정부의 '외로움 기금(loneliness fund)'와 연계하여 노년층, 장애인, 참전용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 50만 파운드(약 8억 원)는 '오디오 콘텐츠 펀드(Audio Content Fund)'와 '커뮤니티 라디오 기금(Community Radio Fund)'을 통해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을 지원
- 2) 외로움 측정 패키지 개발 및 정책사업 영향 분석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사회 조사를 통해 근거기반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UCLA 외로움 척도를 바탕으로 표 <2-#>와 같이 외로움 측정지표 개발 및 배포

〈표 3-3〉 외로움 측정 지표

유형	질문	응답 형태	
간접적	얼마나 자주 동료애 부족을 느끼십니까?	3점 척도	
	얼마나 자주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1. 거의 또는 절대 느끼지 않는다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끼십니까?	2. 때때로 느낀다 3. 자주 느낀다	
직접적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추천) 1. 절대 없다 2. 거의 없다 3. 가끔 느낀다 4. 때때로 느낀다 5. 항상/자주 느낀다	3점 척도 1. 거의 느끼지 않는다 2. 때때로 느낀다 3. 자주 느낀다

자료: Peytrigent et. al.(2020), 「Loneliness monetisation report: Analysis for 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p.3

- DCMS는 외로움 참여 기금(loneliness engagement fund) 지원을 받은 단체들 및 협력기관들이 외로움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대내외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외로움 퇴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권장 하고 있음

- DCMS는 사람들이 Covid-19 기간 동안 심화된 외로움을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서로 표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잉글랜드 지역 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예산은 약 4억 2천만 원(26만 파운드) 수준임

### 3) 외로움으로 인한 영향 및 손실추정 등 정책 근거기반을 위한 조사·연구 확대

- ‘지역사회 삶 조사(community life survey)’<sup>4)</sup> 와 같은 관련 사회조사를 통해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외로움이 건강, 생산성,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심각한 외로움과 관련된 웰빙, 건강 및 생산성 영향을 합하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당 연간 최소 1,600만원(9,976파운드)의 금전적 영향이 있다고 밝힘(Peytrigent et al, 2020)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로움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직업이 없는 상태일수록, 혼자 살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높게 나타남
  -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외로움은 16세 이상 성인의 건강, 생산성,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금전적 피해 금액으로 환산할시 1년 기준 1인당 최소 9,976 파운드(약 1,600만 원)로 나타남

4) 잉글랜드 지역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 사회적 통합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회조사. 2012년 국무실에서 시작되었으나, 시민사회청의 이관과 함께 현재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주관부처로 역할



〈표 3-4〉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비용

(기준: 16세 이상 성인 1명, 1년)

유형	부족 또는 경미한 외로움	경증에서 중등도 외로움	중등도에서 중증 외로움
건강	N/A	N/A	약 176,000원 (109 파운드)
생산성	N/A	N/A	약 534,000원 (330 파운드)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등)	약 10,415,000원 (6,429 파운드)	약 13,221,000 ~ 15,458,000원 (8,157~9,537 파운드)	약 15,458,000원 이상 (9,537 파운드 이상)
총계	약 10,415,000원 (6,429 파운드)	약 13,221,000 ~ 15,458,000원 (8,157~9,537 파운드)	약 16,167,000원 (9,976 파운드 이상)

자료: Peytrigent et. al.(2020), 「Loneliness monetisation report: Analysis for 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mp; sport」, p.1

## 4) 외로움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캠페인

-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에 대해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불편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목표로 2019년 시작하였음
- 매년 외로움 인식 주간(loneliness awareness week)을 운영하고, 캠페인 실시 배경, 목표, 로고, 다양한 참여방식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



자료: Let's Talk loneliness Campaign toolkit

[그림 3-1]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캠페인 로고

- 캠페인을 통해 ①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②서로 이야기할수록 경험을 나누는 것이 쉬워지기에 서로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 ③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음

-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편견 등을 없애고,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외로운 감정을 편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구글 팟 케스트, 스포티파이, 사운드클라우드,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방식을 개선하고 있음

#### 5) 외로움 대응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성하여 사회 곳곳에 외로움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을 시민사회 참여로 바라보고, 개인, 지역 자원봉사단체부터 전문자선단체까지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정부부처 뿐 아니라 70여개의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외로움 대처 네트워크(Tackling loneliness network)를 구성
  - 가칭 'tackling loneliness hub' 온라인 포털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실행단체들이 외로움과 이를 퇴치하기 위한 모범사례에 대한 통찰력과 아이디어 등을 보다 쉽게 서로 공유하며,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 2021년에는 네트워크에서 집중해야할 주요 영역으로 ①청년들의 외로움, ②노인들의 외로움, ③지역, 장소 기반 접근, ④디지털 활용을 설정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활용' 측면에 특히 집중하고 있음(UK Government, 2021b)

#### 6) 정신건강케어 프로그램(사회적 처방)에 문화예술기관 연계 확대

- 영국 국립보건의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2006년부터 정신건강케어 서비스를 약물위주의 치료에서 대화 및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연결사회: 외로움 대처 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문화예술기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친교모임, 예술·체육활동 등과 같은 여가 형태의 사회적 처방이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효과적이었던 영향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처방'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같은 문화예술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UK Government, 2021a)
- 사회적처방의 핵심적 작동방식은 지역자원을 잘 알고 있는 매개인력(link-connector)<sup>5)</sup>이 상담을 통해 환자가 특정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안·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에서 매개인력은 전문예술인이기 보다는 제3섹터 등에서 오래 활동하여 지역 내 프로그램이나 자선활동 정보에 익숙한 시민활동가들이 대부분임(최보연, 2019)

5) 사회적 처방 매개인력은 Social Prescriber 또는 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 wellbeing advisor, community connector, community navigator, community health worker, community agent, health adviso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 제2절 일본

### 1.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 논의배경

#### 1) 일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히키코모리 등 현상으로 고독·고립문제 심화

- 일본은 노인인구, 1인 가구의 증가로 90년대부터 고독사 문제에 주목하여왔고, 2000년대 들어서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히키코모리 등 고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고독사보다 사회적 관계 단절에 의한 죽음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OECD(2005)에 의하면 가족이외의 교류 중 ‘친구, 동료, 기타 사람’과의 교류가 ‘전혀 없다’ 혹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5.3%로 OECD 20개국 중 1위<sup>6)</sup>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일본 고령사회백서(2010)에서는 사회적고립을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신 스스로가 외톨이라고 느끼는 정신적인 상태인 ‘고독’과 달리 접근

#### 2)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고독·고립에 대한 정책 총괄대응 필요성 표면화

- 코로나19 이전에는 인구감소 및 1인 가구 증가, 고용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타인과의 교류가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후에는 타인과의 교류 단절 급증과 함께 각종 상담지원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사회 내에서 고독·고립문제가 점차 심화되기 시작함
-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공동체 기능은 보다 취약해지고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이 급증하자 고독·고립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응 필요성이 표면화되었음
  -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일본 내 자살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일본국민 자살자 수<sup>7)</sup>는 20,380명으로 2019년 대비 449명 증가한 수치이며, 남성의 자살자수는 감소한 반면 여성의 자살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6) 상위 및 주요국가 순위: 1위 일본(15.3%), 2위 멕시코(14.1%), 3위 체코(10.0%), 4위 포르투갈(9.6%), 5위 프랑스(8.1%), 8위 한국(7.5%), 14위 영국(5.0%), 20위 네덜란드(2.0%)

7) 자살자수: '19(20,381명, 남:13,900명; 여:6,481명) → '20(20,830명, 남: 13,815명, 여: 7,015명)

## 2.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체계

### 1) 2021년, 고독·고립 문제에 총괄대응을 위해 총리내각에 고독·고립대책실을 설치

- 2021년 2월, 일본 총리내각<sup>8)</sup>은 코로나19와 사회적 불안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고독·고립 문제에 총괄 대응하기 위해 내각관방 산하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출범하였으며, 담당직에 사카모토 데쓰시(저출생 대책 담당상)를 임명하고 겸무를 포함하여 총 31명의 인력을 배정하였음
  - 2021년 10월, 여성활동 담당 및 어린이정책 담당과 함께 고독·고립대책 담당으로 노다 세이코 내각부특명 담당 장관(지방활성화·저출산 대책·남녀공동참여)을 임명
- 사회적 고립 및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책은 후생노동성, 법무성, 문부과학성<sup>9)</sup>, 소비자청, 총무성, 내각관방 등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고독·고립대책실은 기존 중앙부처가 수행해오고 있던 고독·고립대책 관련 정책 총괄과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함

〈표 3-5〉 고독·고립 대응관련 부처별 정책내용

유형	고독·고립 대응 정책
후생노동성	- 지역 내 유대강화: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제 정비 - 자살방지: SNS활동등을 포함한 상담지원체제강화 및 지원정보 검색사이트 활용 등 -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자립상담지원기관 운영을 비롯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진행 -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지원: 히키코모리 본인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을 진행 - 고령자 간호·예방·돌봄: 고령자를 통한 ,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 - 어린이 돌봄: 어린이식당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어린이 돌봄강화, 어린이 생활 및 학습지원 등
법무성	- 민간봉사자에 의한 형무소 출소자 지원(46.7억엔), 어린이·여성·외국인 인권문제 해결(35.5억 엔) 등의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독·고립에 관한 인권상담 및 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음
문부과학성	- 어린이·학생의 자살예방(도움요청 교육)(비예산사업), 왕따·따돌림 대책 및 등교거부지원사업(79.8억 엔), 스쿨 소셜네트워크 활용사업 및 스쿨 카운슬러 활용사업(77.1억엔), 학생 멘탈케어지원(비예산사업) 등의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및 학생관련 고독·고립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음
소비자청	- 지방소비자 행정강화 교부금(17.5억엔), 고독·고립에 기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계발사업 (17.5억엔) 등의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독·고립에 의한 소비피해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음
총무성	- 행정상담(8.0억엔), 지역공무원 멘탈헬스대책지원(비예산사업), 디지털활용지원추진사업(16.7억엔) 등 고독·고립에 관한 상담 및 정책시행 기반마련 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음
내각관방	- 고독·고립의 실태파악에 관한 전국조사(0.4억엔), 고독·고립대책용 홈페이지 개선(0.2억엔), NPO 법인 등과의 제휴에 요하는 조사경비(0.4억엔)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범부처 사업으로의 확장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됨

8) 일본 내각 산하 행정기관으로는 내각부, 디지털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을 비롯하여 내각관방과 주요 현안을 담당하는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음

9) 문부과학성은 교육과 과학기술·학술, 스포츠,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문체부(관광분야 제외, 일본의 관광정책은 국토교통성 산하 관광청에서 담당),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와 유사함

## 2) 2021년 12월, 고독·고립대책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업 계획 수립

- 고독·고립으로 인한 자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고독·고립은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및 기타관련 정책과 연계를 도모해 종합적 대책을 추진해야 하므로 고독·고립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업계획으로 2021년 12월 28일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을 발표하였음
  - 2022년 내각관방 예산개산(概算)서에 의하면 고독·고립대책실 예산은 1.31억 엔으로 내각관방 예산의 0.13%, 내각소관 전체예산 중 0.12%에 수준이며, '고독·고립 실태 전국조사(0.44억 엔)', 'NPO법인 등의 연계 관련 조사 경비(0.38억 엔)', '고독·고립대책용 홈페이지 개선(0.16억 엔)' 등으로 구성
- 고독·고립대책 중점계획은 관계부처의 고독·고립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독·고립 대책에 임하는 NPO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고독·고립 대책 추진 회의 및 학계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계획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3) 비자발적인 고독·고립에 대한 대처와 예방적 정책 추진

- 고독·고립과 관련된 감정은 일생 중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며, 사회환경의 변화로 각 감정을 당면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 비자발적인 고독과 고립을 대상으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고독·고립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예방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함
  - '고독·고립에 대한 고민 없는 사회', '모든 이가 자기존재감·자기유용감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상호간에 의지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추진
-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 니즈 및 각종 배려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
  - 당사자와 가족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타인과의 유대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별로 사회적 자원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민간의 각종 시책·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내실화를 도모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시행해온 정책사업들을 활용해 고독·고립대책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사회복지협의회 및 주민조직과 협력하여 NPO 등과의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시책을 전개

### 3. 외로움·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 주요내용

#### 1) 고독·고립 실태파악 및 관계부처 진행상황 점검

- 고독·고립과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평가 및 검증, 예방 관점에서의 기본방향 검토 등의 근거마련을 위해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고독·고립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연구 및 데이터 축적을 계획하고 있음

#### 〈고독·고립 실태파악에 관한 전국조사 계획(안)〉

- (성격) 통계법에 의거한 일반통계조사
- (조사목적) 일반국민들의 고독·고립실태를 파악하고 각 중앙부처의 정책시행의 근거로써 활용하기 위함
- (조사대상) 전국 만 16세 이상 일반국민 2만 명
- (조사사항) ① 고독에 관한 사항 : 주관적 고독감 수준, 지속기간, 경험한 라이프이벤트(이별·사별, 인간관계 내 트러블 등), 사회 및 타인과의 관계만족도 등
- ② 고립에 관한 사항 : 외출 빈도, 외출 목적, 행동 범위, 사회적 교류, 사회 참여, 각종 지원 상황,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 등
- ③ 기타관련 사항: 소셜네트워크 이용 상황, 불안·고민관련 상담 상대 여부, 불안 및 고민상담 시의 감정, 심신의 건강상태, 코로나심화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변화, 생활의 변화 등
- ④ 인구특성: 연령, 성별, 혼인상태, 동거인 수, 경제활동 중인 동거인 수, 교육·취업상태, 거주형태, 연간가구소득

- 고독·고립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의 정책 진행상황 검토 및 효과적인 대책 논의를 위해 고독·고립대책담당 장관이 의장을 맡고 고독·고립대책관련 주요 14개 중앙부처의 차관들이 구성원으로 참석하여는 ‘고독·고립 대책에 관한 연락조정회의’를 연간 6회 개최 예정임
- 참여부처는 내각부, 부흥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경찰청 등 14개 부처로 계획됨

#### 2) 원스톱 상담 및 맞춤형 지원체계 정비

- 각종 지원 시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상담 창구, 푸시알림(push notification)형 정보발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의견(혹은 요청, 도움)을 쉽게 제공하는 환경정비 등 원스톱 상담 및 맞춤형 지원체계 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 지원정보가 제공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정보의 시의성을 제고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사자 및 측근들이 지원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발신·홍보 및 보급개발, 교육 등을 추진
- 상담지원체계(전화·SNS 상담 등의 24시간 대응 추진)를 정비하고, 광범위한 상담지원(상담지원제도 등의 연계), 전문적인 상담지원(다양한 업계의 강점 발휘)을 실천하기 위해 매개인력의 확보·육성·자질향상 등을 추진

- 현재 고독·고립대책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안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하여 담당 상담센터로 연결을 지원하고 있음
  - ① 괴로움 및 자살충동이 있는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는 '지키자, 마음'으로 안내됨. 해당 서비스는 전화가 걸린 지역의 정부지정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전화 및 SNS를 통한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생화속 고민과 곤란에 대한 대응 상담
  - ② 아이들의 괴롭힘(왕따)이 의심되는 경우, 문부과학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의 SOS상담창구'로 안내됨. 각 소재지의 교육위원회 상담기관으로 연결되며, 연중무휴 왕따 및 고민에 대한 상담
  - ③ 성범죄·성폭력의 피해로 인해 상담받고 싶은 경우, 내각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와 'Cure Time'로 안내됨. 성폭력 피해에 대한 원스톱 지원 및 10개국어 대응이 가능한 성폭력 상담(익명)
  - ④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는 '아동상담소·아동상담학대 대응다이얼'과 '전국아동상담소 운영일람'을 안내되며, 육아 및 학대상담
  - ⑤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내각부에서 운영하는 'DV상담 네비게이션'으로 연동되어 거주지 인근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전화 및 SNS, 메일 등을 통해 외국인도 상담받을 수 있음
  - ⑥ 삶이 힘들거나 다양한 고민으로 인해 상담받고 싶은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는 '지원정보검색 사이트'와 'SNS상담'을 안내하며, 일반재단법인 사회적포괄 서포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밀착 핫라인'도 함께 안내됨. 고민의 유형 및 방법, 지역별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삶의 고민을 주제로 상담

### 3) 돌봄 및 교류 거점 확보 및 지역계획 수립 지원, 관·민·NPO 등의 연계 강화

- 돌봄 및 교류의 장을 위한 거점 확보하고 사람과 사람간의 '유대감'을 실감할 수 있는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독·고립 대책에 대응하는 NPO 등의 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관·민·NPO 등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 다양한 유형의 휴게시설(있을 곳, 거처)을 마련하고 평가·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당사자나 가족 등의 의향·사정을 고려한 아웃리치형 지원을 추진
  - '사회적 처방'을 활용하고 공적 시설 등을 통해 고독·고립 대처 및 정보 발신하며,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상호 연계·협력하여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체제 구축
- 고독·고립 대책을 수행하는 NPO 등의 활동에 대해 세심한 지원 추진하기 위해 협의·연계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가칭, 고독·고립대책 제휴 플랫폼) 구축, 행정절차 내 고독·고립 대책 추진체제 정비 등을 추진

#### 4) 고독·고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캠페인, 포럼 등)

-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은 고독·고립문제에 대해 ‘말하고, 알고, 공감하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너는 혼자  
 가 아니야 ~ 목소리를 내자, 말을 걸자~’ 캠페인을 추진하고, 고독·고립문제와 관련된 정부지원 사업을  
 알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독·고립에 관한 포럼’을 계획하고 있음
- 고독·고립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고독·고립대책담  
 당 장관인 노다 세이코를 호스트로 고독에 대한 경험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 등을 주제로  
 온라인 토크프로그램 ‘혼자가 아닌 카페(ひとりじゃないカフェ)’를 진행하고 있음
- 고독·고립에 관한 포럼 주제(안): 제1회 육아(21.06.24.), 제2회 생활빈곤(21.07.01.), 제3회 어린이·청소년(21.07.06.), 제4회 여성(21.07.13.), 제5회 사람과 지역의 연결(21.08.19.), 제6회 발견하다·연결하  
 다·지켜내다(21.09.02.), 제7회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21.09.28.), 제8회 중·장년층(21.10.15.), 제9  
 회 후쿠시마를 잇는 인연만들기(21.11.08.), 제10회 상담지원(21.11.26.)



## 제3절 시사점

### 1. 외로움·사회적고립감을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영국 외로움 차관 임명(DCMS 차관 겸직), 일본 총리내 각의 고독·고립대책실을 설치한 것은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닌 사회맥락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외로움·사회적고립감을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및 국가의 역할로 확대한 것인데, 외로움 감소를 새로운 정책역할로 부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높이고자 총괄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018년부터 정책을 추진한 영국의 경우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외로움 대응 전략 발표를 대체적으로 환영하지만 연차가 지날수록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함(House of Common Library, 2021)

### 2. 국가정책 전반에 외로움·사회적고립감 성과관리

- 외로움·사회적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부처에서 사회적 처방, 지역 내 유대강화 프로그램, 상담 등으로 분산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점검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큼
- 영국과 일본 두 사례에서는 외로움·사회적고립감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설치 혹은 지정하고 10개내외의 관계부처의 주요사업에서 외로움·사회적고립감 관련 평가 및 모범사례 발굴, 사업진행 점검 및 조정 역할을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보고 범부처 협업계획을 수립하였음
  - 영국 관계부처 :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기업,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 교육부, 환경식품농촌부, 보건사회복지부, 교통부, 고용연금부, 내무부, 주택, 커뮤니티 및 지방 자치 단체
  - 일본 관계부처 : 내각부, 부흥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경찰청

- 총괄부처는 외로움·사회적고립감 정책실행 근거(evidence)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다 정부전략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특징적이며, 사회 현황을 진단하고 원인과 영향 파악을 위한 지표개발,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고 있음

### 3. 외로움·사회적고립감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설계

- 외로움·사회적고립감을 보건 및 복지 관계부처에서 전담하지 않고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일본의 고독·고립대책실에서 전담하는 이유는 외로움·사회적고립감을 약물치료 영역이 아닌 사람간의 소통, 지역사회와 개인의 촘촘한 연결 및 관계망 회복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 이에 주관부처(총괄)는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삶에서 누구나 겪는 일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스톱 정책전달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민간협력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외로움에 대한 대화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누구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가 외로움을 대처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
  - 심리적 치유 중심의 정책사업에서 활동하는 매개인력은 Link Worker, Community connector 등으로 불리며 기존 지역사회 내 상담, 지원사업 연계 등의 역할을 하는 인력인데, 점차 친교모임, 예술·체육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와 연결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육성·재교육
- 또한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개인들이 대외활동을 꺼려하고 타인과의 대면접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로움 감정을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만남(플랫폼)을 추진하는 등 세심한 정책설계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

## 제4장

# 국내정책 진단 및 외로움·고립감 대응 문화정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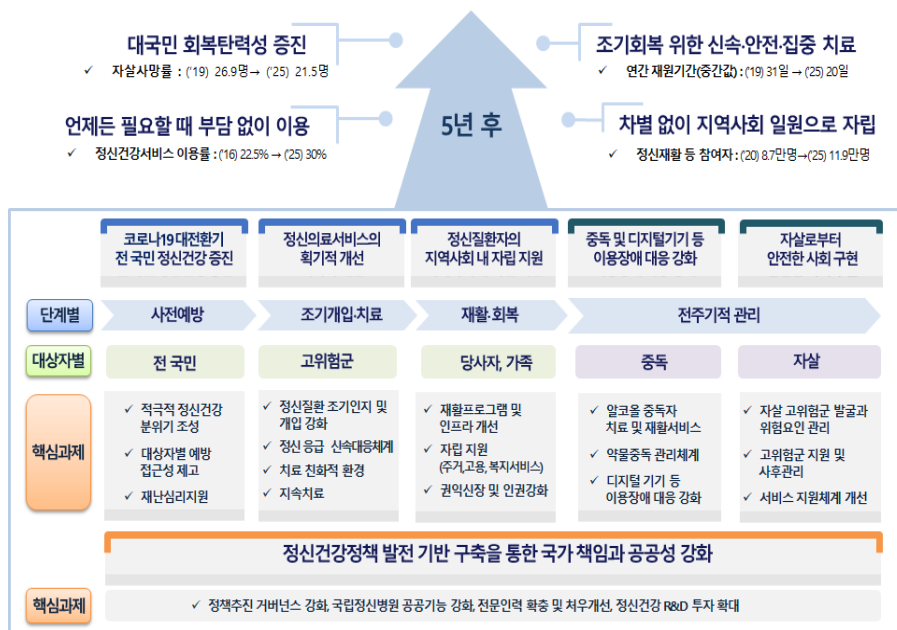
## 제1절 외로움·사회적 고립 대응정책 현황

### 1. 정신질환 치료(Treatment)

#### 1)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장 서비스(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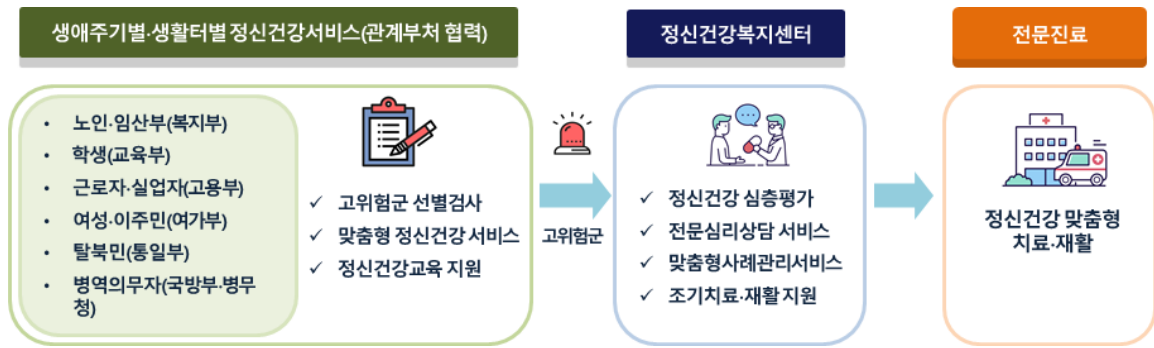
-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복지”로 외연이 확대되었으나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가 미흡하고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는 등 서비스 이용 장벽이 지속되자, 정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였음
-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음

###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그림 4-1]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략1에 해당되는데, 이는 ①대국민 정신건강 포럼 및 확진자·격리자 대상 맞춤형 심리지원, ②관계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등의 내용임



[그림 4-2]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 보건영역에서 자살예방이나 외로움 문제는 정신건강(정신장애)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주로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치료, 상담 및 교육, 심리지원, 교육훈련, 자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영역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포함함

2) 정신건강증진기관 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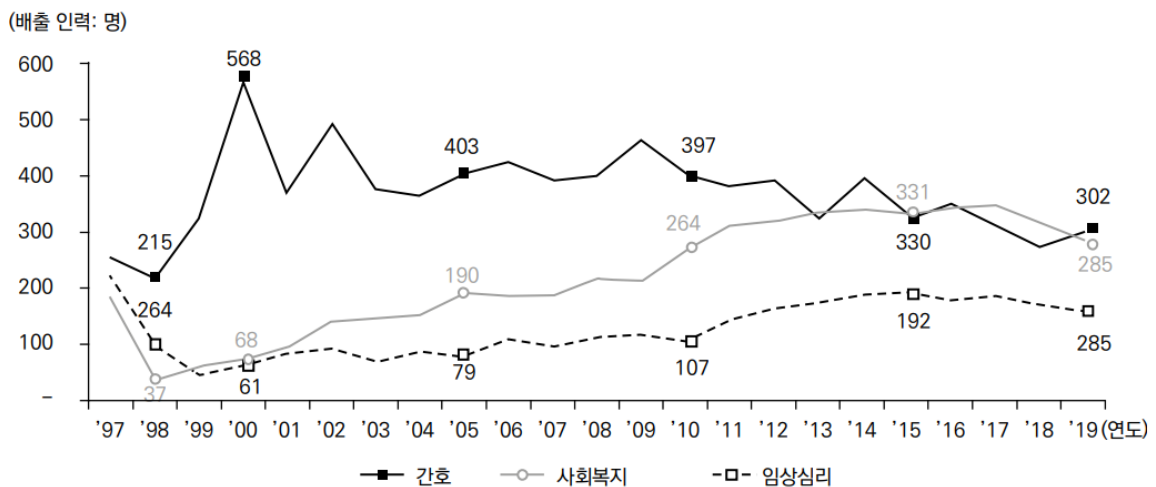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로는 정신의료기관 1,892개소 정신재활시설 348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1)

<표 4-1>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

구분	기관 수	주요기능
계	2,607	
정신건강복지센터	260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정신의료기관	1,892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신요양시설	59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정신재활시설	348	-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훈련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말 기준 수련기관 총 287개, 수련과정 총 396개임
  - 1995년 12월,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강조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정신건강전문요원(mental health specialists)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들에 대한 수련 제도를 1997년 3월에 도입하였음
  -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개수는 정신건강간호사 36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12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48개이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적의무로 보수교육을 매년 12시간(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이수해야 함
-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누적 배출 인원이 1만 6000여명에 이르나, 간호 직역은 배출이 감소되고 있는 동시에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이탈하고 있고, 임상심리 직역은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서비스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기타 기관(새로운 정신건강사업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임(이상훈, 2020)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 시스템에 가입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근무비율을 살펴보면 간호는 의료기관(42.1%)과 국공립기관(18.41%),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30.8%)와 정신재활시설(16.6%), 임상심리는 기타(15.8%) 근무 비율이 높음



자료: 이상훈(2020), 정신건강인력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그림 4-3] 정신건강전문요원 연간 배출 현황(2019년)

## 2. 정신건강 돌봄(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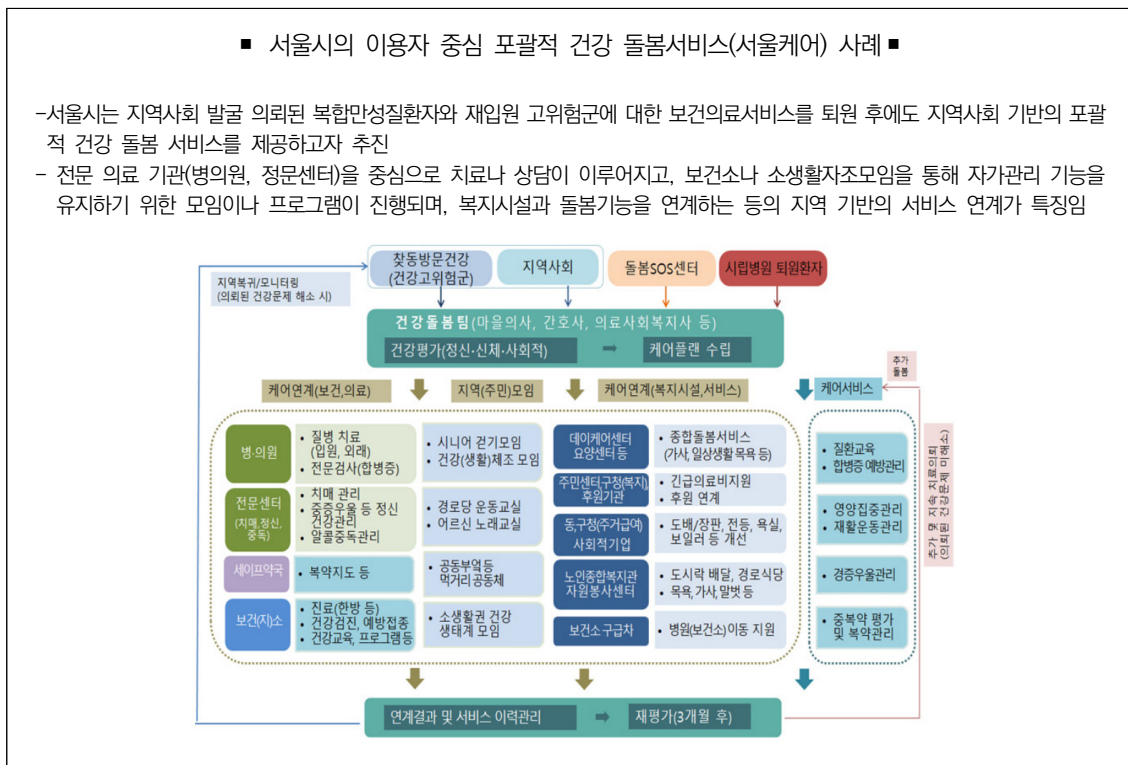
### 가. 정신건강 커뮤니티케어

#### 1)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돌봄체계(커뮤니티케어) 강화(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2019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의료-정신의료-복지 연계 모델을 통해 신체와 정신질환 복합사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취약계층 뿐만아니라 비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돌봄, 정신건강 치료 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개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지역단위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의 거버넌스를 통해 위기개입, 사례관리, 조기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주로 정신의료기관인 병의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퇴원후 지역사회 사례관리는 시·군·구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함
- 지역사회 기반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적 간호와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확대, 노인교실에서 사회참여 및 노화적응 프로그램 제공, 어르신 지역 돌봄 시범마을 선정 등의 지역사회 자율형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하고,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영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을 제시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4) 외로움·사회적고립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추진

- 외로움 및 사회적고립 해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고립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외로움 관련 조례는 2019년 부산광역시의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가 최초 제정이고,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는 2018년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최초 제정임
-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 혹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대체로 외로움 및 사회적고립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 계획 수립 및 시행, 외로움·사회적고립 실태조사, 측정척도(지표) 개발, 프로그램 제공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4-2〉 외로움·사회적고립 해소를 위한 지자체 조례 현황

법령명	지역명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2018. 1. 4.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대구광역시	2018. 10.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성북구	2018. 11. 15.
부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중구	2018.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강남구	2018. 12.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마포구	2018. 12.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2018. 12. 28.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	공주시	2018. 12. 7.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서산시	2018. 4.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동대문구	2018. 7.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서대문구	2018. 7. 4.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2018. 9. 27.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2019. 1.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관악구	2019. 10. 31.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원주시	2019. 11.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용산구	2019. 11. 8.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양평군	2019. 12.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수영구	2019. 12. 27.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고양시	2019. 12. 3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남구	2019. 12. 31.

법령명	지역명	시행일자
부산광역시동래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동래구	2019. 2.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광진구	2019. 3.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구로구	2019. 3.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울주군	2019. 3. 21.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강원도	2019. 3. 8.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천안시	2019. 4.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금정구	2019. 4. 22.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부평구	2019. 4. 22.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통영시	2019. 4.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2019. 4. 5.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2019. 5. 11.
부산광역시 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북구	2019. 5.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2019. 5. 9.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영월군	2019. 6. 7.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상주시	2019. 7. 16.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2019. 7. 3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기장군	2019. 8. 28.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2019. 8. 30.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문경시	2019. 8. 7.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사상구	2019. 9. 19.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속초시	2019. 9. 20.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진천군	2019. 9. 20.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횡성군	2019. 9.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수성구	2019. 9. 30.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2019. 9. 8.
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2020. 1.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2020. 10. 29.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2020. 10. 7.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	2020. 10. 8.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2020. 11. 6.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횡성군	2020. 12. 30.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음성군	2020. 12. 7.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거제시	2020. 2.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대덕구	2020. 3. 27.

법령명	지역명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강북구	2020. 5.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도봉구	2020. 5. 7.
부여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부여군	2020. 6.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2020. 7. 9.
부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동구	2020. 8. 5.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익산시	2021. 1. 1.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광산구	2021. 10. 1.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군산시	2021. 12. 15.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정선군	2021. 12. 27.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21. 12.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2021. 12. 31.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안양시	2021. 2. 19.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경상북도	2021. 4. 1.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성동구	2021. 4. 1.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정읍시	2021. 4. 1.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2021. 4.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2021. 5. 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21. 5. 20.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충주시	2021. 5. 28.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진주시	2021. 5. 31.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포항시	2021. 6. 1.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영도구	2021. 6. 30.
영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영양군	2021. 7. 2.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충청남도	2021. 7. 20.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중구	2021. 9. 27.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중구	2021. 9. 30.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2022. 1.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서구	2022. 1. 7.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2022. 2. 11.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태안군	2022. 2.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부산진구	2022. 2. 4.

## 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 1) 가족·1인가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외로움·사회적고립감의 해소와 예방·상담·치료 차원에서 가족 및 1인가구 대상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문화 서비스(1인가구 포함)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함
  - 이때 ‘가정’ 개념은 ‘1인가구’(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포괄함
- 가족상담 서비스 지원은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자녀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비혼청소년 임신갈등상담 등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됨(일반상담, 정보제공상담, 집단상담 등 실시)
  -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위기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등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서적 지원) 외에 사례관리(사례관리사 담당)를 통해 지역의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도 수행됨
  -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단위의 가족사례관리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사례관리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판정(Screening)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 이때 지원하는 11개 생활영역은 안전, 신체적 건강, 심리·정서적 건강, 일상생활유지(의식주, 취미 및 여가활동), 가족생활(관계, 돌봄), 경제(소득/부채), 사회적지지, 직업, 교육, 생활환경(주거), 인권 등임
- 또한 건강가정의 생활문화 발전을 위해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역량강화, 자기개발을 통한 성장, 관계유지 및 개선, 안전,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의 추진하고 있음
  - 가족센터의 지역 맞춤형 1인가구 프로그램
    - (일상생활 프로그램) 건강관리, 재무관리 등 1인가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안전 지원
    - (자기개발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감정코칭 등 1인가구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관계개선 프로그램)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심리·정서상담 서비스) 1인가구의 관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정서 상담 및 집단 상담 서비스 제공
  - 가족센터의 1인가구 프로그램 예시
    - (청년) 사회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경제·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 (중장년층)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 (고령층)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 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 (여성)·안전·심리 교육, 방법 장치(스마트 초인종, 창문 잠금장치, 방법필름 등) 지원

## 2) 가족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자격관리

- 가족 및 1인가구 대상 상담 프로그램은 지역단위에 설치된 가족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총괄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로 변경하여 운영됨(시·군·구 가족센터)

〈표 4-3〉 가족센터의 영역별 수행사업 내용

사업영역	수행사업	비고	
기본사업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 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 지원, 가족상담, 조부모 역할 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 초기상담 → 전문상담) 돌봄미 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인가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역식, 가족 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다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별도사업	아이돌봄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방문교육지원, 통번역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자료집)

■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의 자격 관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표 4-4〉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치료 자격관리 현황

분 야	이용 대상	자격 명	자격 부여 기관	조건
개인 상담	개인	심리상담사(*심리학과) 상담심리사(상담학과)	한국심리학회(*시험) 한국상담심리학회(*시험)	석사학위 이상(수련 및 시험) (1,2,3급,전문가)
개인 치료 :정신건강(보건)	개인(정신질환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자격(보건복지부)	정신병원 1년 이상 수련 의무
개인 심리평가 :정신건강(보건)	개인(정신질환자)	임상심리사(1급, 2급)	국가자격시험 (보건복지부)	
부부/가족상담	부부/가족 간 갈등 이혼전후 상담	가족상담사(1,2,3급,전문가) 가족치료사(1,2,3급,전문가)	한국가족관계학회(*시험) 한국가족치료학회(*시험)	관련 학과 석사이상 (수련 및 시험)
부부이혼(의무) 상담	합의/소송이혼(숙려)	법원이혼상담/자녀양육교육	한국가정법원(법무부)	가정법원 심사
가족교육	부부/부모자녀관계	가족생활교육사	한국가족관계학회	관련학과 석사이상
가정생활 전반	생애주기별 가족건강성	건강가정사(가족센터)	국가자격(여성가족부)	관련학과 졸업/교과이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문화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1,2,3급)	국가자격 시험(여성가족부)	관련학과 졸업
청소년상담	청소년문제, 갈등, 적응	청소년상담사(1,2,3급)	국가자격 시험(여성가족부)	관련학과 졸업
아동상담 및 치료 → 사회적 바우처 (보건복지부/사 회서비스원) 소득 분위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무료~50% 부담(국비지원)	〈아동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 해소& 적응, 발달에 대한 치료. 다문화가정 및 발달장애 아동 문제〉	놀이치료사/치료놀이사	한국놀이치료학회	각 관련 학과 졸업자로 학회 회원의 임상 수련 시간과 자체 시험(*) 있음
		미술치료사(임상1,2,전문가)	한국미술치료학회(*시험)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음악치료사(음악심리상담사)	한국음악치료학회,전국음악 치료사협회한국심리교육협 회 등(*시험)	
		무용·동작치료사 /운동치료사	무용동작치료학회 운동치료·처방학회	
		언어치료사	한국언어치료학회	
레크리에이션	개인/단체/복지/ 체육	레크리에이션지도사	한국레크리에이션지도자 협회	복지, 체육 관련학과 소정 연수시간 (3~4일 연수)

주1 : 자격부여기관: 국가자격을 제외하고는 민간단체에서 부여하고 관리하는 자격임

2 : 관련 자격증 제도와 관련해서 본 연구자가 자료를 검색하여 재정리함

### 3. 정신건강 치유(Healing)

#### 1) 문화 및 인문, 관광 치유(문화체육관광부)

-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심리·정서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 문화예술치유는 미술·춤·음악 등 예술 분야와 치유효과를 접목한 ‘아트테라피(Art therapy)’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본래 정신건강 치료 목적으로 도입된 개념이나 최근에는 정서적 안정을 돕는 활동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면서 위로받고 관계맺고 치유하는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짐
  - 2019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노인의 예술 및 문화 참여는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따라 의료비용을 줄이고 입원 및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어린이의 예술 및 문화 참여는 정서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임상연구를 발표(Fancourt & Finn, 2019)<sup>10)</sup>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음악·미술·무용 등 예술매체와 심리·상담기법이 융합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사업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치유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국방부·법무부·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관련시설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음

〈표 4-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학교폭력·가정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처럼 심리적 상처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범죄 사전 발생 지역 거주 주민(가정폭력 포함) : 경찰서 및 치안센터, 문화파출소(경찰청)</li> <li>- 군대부적응 병사 : 국군군병원, 육군 그린캠프, 해군 블루캠프(국방부)</li> <li>-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 wee프로젝트 관련 시설(교육부)</li> <li>- 학교 부적응 학생 : 소년원학교(법무부)</li> <li>- 가정폭력 피해자 : 보호시설(일반))(여성가족부)</li> <li>-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위험군에 있는 어르신 및 가족 : 문화시설, 치매안심센터</li> <li>-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일반 국민(찾아가는 예술처방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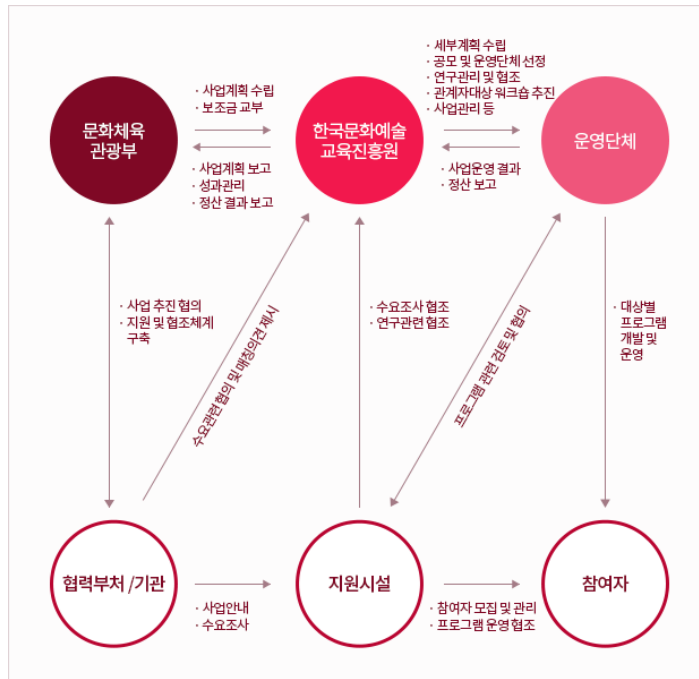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arte.or.kr/business/society/healingprogram/intro/index.do>

〈표 4-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업 목표수혜자(2022년)

지원 대상	'22년 목표 수혜자	비고
경도인지장애, 치매위험군	1,000명	치매안심센터 연계
정신건강상담 수요층	1,000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미혼모·임산부 등	1,000명	보건소 등 연계
졸업예정자 및 취업준비생 등	1,000명	대학 내 시설 등 연계
비대면 치유 콘텐츠 개발	4,000명	-
총계	8,000명	-

10) 지난 20여년간 3,000개 이상 연구를 종합하여 예술과 정신적·육체적 건강과의 관계를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는 보고서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자의 자격기준이 법·제도 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그림 4-4]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업추진체계

- 한편 코로나 19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2021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2022~2027) 상의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확대” 를 선정하였음
  - 인문가치를 통해 코로나 관련 업무 종사자, 사회취약계층 등의 우울감, 혐오·편견의 감정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인문강좌’ 운영, ‘여행길 인문학’, ‘치유순례길’ 조성,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2022~2027)에서 인문치유와 관련된 계획 내용은 기반 구축, 프로그램 개발, 지역센터 지정운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표 4-7〉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2022~2027) 중 위로와 공감을 위한 정책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반구축	- 연간 외로움 실태조사, 한국형 외로움 측정 척도 개발, (가칭) 외로움포럼 창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특성에 맞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22년 4개 → '26년 20개). 인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지역센터 인력교육 지원 등
지역센터 지정	- 민간 위탁을 통해 기초·광역 단위 외로움 상담 종합 지원 지역 거점 센터 지정('22년 2개, 기재부 협의 후 확대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느슨한 공동체 프로그램, 정체감 회복을 위한 상담심리 프로그램 등 종합지원



- 관광영역에서는 치료중심의 의료관광에서 나아가 치유 즉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휴양, 건강관리, 뷰티, 스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요가 명상, 숲 체험 등 심신안정을 돕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년 ①중대본 '문화예술을 통한 의료진 치유 추진방안'(4.25.), ②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5.26.), ③중대본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8.9.)에 포함·발표
  -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로 지친 사회구성원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코로나 심신안정 치유관광 체험 지원 추가됨
- 또한 종교문화 체험에서 마음돌봄 치유를 기대하여 정책사업을 재구성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각 종교계의 전문 분야(예: 사찰음식, 명상 등) 지식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직군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해소하는 '마음돌봄 치유 프로그램(신규)', 종교시설 치유여행(순례길)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 산림치유(산림청)

- 산림치유는 질병 치료행위가 아닌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의 유지를 돕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 활동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됨
  - 산림공간을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하는 활동은 '산림치유' 또는 '산림요법'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한 개념으로 '자연치료(Natural therapy)', '야생치료(Wilderness therapy)', '치료레크리에이션(Therapeutic recreation)' 등이 있음
- 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민간에서는 2006년 산림치유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사)한국산림치유 포럼을 설립하는 등 산림치유 정책을 추진
  -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자연과 산림안에서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숲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 치유효과를 활용하여 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
  - 특히 코로나(코로나블루), 산불, 태풍, 홍수, 화재 등의 각종 재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신체 및 정신의 외상(불안, 우울, 무기력감,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피로 누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심각한 정신 건강의 위협을 받는 대상자들을 위한 "국민마음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산림청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산림치유 모델을 개발할 목적으로 2009년 산음자연휴양림 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 이후, 2021년 기준 전국 35개 치유의 숲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치유효과를 축적하고 있음

- 2020년기준 치유의 숲 조성(33개),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1,600여명), 산림복지전문업 등록(754건)

-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림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치유의 숲 등에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치유기능을 위해 산림치유 인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별, 대상별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
- 산림치유는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중환자는 물론 심신회복과 휴양, 생활습관 개선 등을 원하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06\\_01\\_01&cmsId=FC\\_001569](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06_01_01&cmsId=FC_001569)

[그림 4-5] 산림치유 개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①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를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②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③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산림치유지도사(국가자격증)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에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산림, 보건, 의료, 간호 등 국가에서 제시한 관련학과 졸업 또는 숲해설 등의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림청지정기관 교육기관의 교육이수(1급 130시간, 2급 158시간) 후 양성과정별 평가시험 결과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표 4-8〉 산림치유사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등급	자격기준	업무범위
1급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①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②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li> <li>- 산림치유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li> <li>-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실행계획 수립</li> <li>- 산림치유지도사의 자체능력배양 교육 계획 수립</li> <li>- 산림치유프로그램에 대한 평가</li> <li>- 산림치유 관련 관리·실행 업무</li> </ul>
2급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①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②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 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③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④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치유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li> <li>-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참가자 관리</li> <li>-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li> </ul>

### 3) 치유농업(농촌진흥청)

- 치유농업은 농업이나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이나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 및 활동을 의미함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020.3.24.)되면서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라는 용어를 법제도에서 명시함
  - 법에 근거하면,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과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치유를 위해 농업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은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농업(social farming),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용어로도 사용됨

-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 목적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임
  - 식물, 동물, 음식(식품), 농작업, 경관(환경)과 문화 등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ihhs.go.kr/usr/persnal/Healing.do?nongsaroMenuId=PS04325>

[그림 4-6] 치유농업 개념

- 현재 농촌진흥청은 2021년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산업화 전략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보급 확대를 위해 치유농업센터 조성 추진과 치유농업시설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1998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해왔으며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과 치유농업의 연계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음
  - 2021년 시범사업으로 ‘치유형 농촌관광’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농산물, 향토음식,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교류 등을 통해 도시와 다른 경험으로 정서적 치유를 돕고자 하며, 프로그램은 마을형 6개소, 경영체형 4개소 시범사업 중임
- 한편 치유농업사는 식물을 가꾸고 동물과 교감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과 치유농장, 그 밖의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우선 취업할 수 있음(2022년 첫 번째 국가자격시험)
  - 치유농업사 자격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차원에서 대학이나 협회 등에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치유농업사의 직무는 치유농업 환경을 조성·유지·개선하고 소재를 적용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참여자의 안전과 활동을 돕고, 그 효과의 진단·평가 및 사례를 관리하며, 치유농업 사업의 서비스 공급자와 소통을 촉진하여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수준을 관리를 담당함

### 3) 해양치유(해양수산부)

- 해양치유는 법상으로 해양치유자원을(갯벌, 염지하수, 해양생물 등)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2021년 제정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에는 해양치유, 해양치유자원, 해양치유시설, 해양치유지구, 해양치유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음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 K-Marine Healing)창출'을 비전으로하고 3대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전략은 ①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발굴, ②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 ③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임

(표 4-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

전략	세부추진과제	주요내용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① 해양치유자원 이용·관리체계 마련 ② 지역 특성화 및 융합 프로그램 발굴 ③ 해양치유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해양치유자원의 추가 발굴 및 해역별 분포 현황 조사와 자원의 효능발현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표준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원관리 프로세스를 도입 -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농촌의 치유시설이나 미술·음악·심리치료 등 타 분야와 연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장비·기기를 개발하고, 원격지에서 활용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	① 해양치유 시범 거점 조성 추진 ② 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확대 추진 ③ 해양치유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해양치유센터(완도·태안·울진·경남 고성) 설치·운영,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과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해양치유지구를 연안 지자체 중심으로 지정 -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한 어촌을 '해양치유마을'로 시범 조성하여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거점을 확대 - 효능, 분포도 등 해양치유자원 정보와 센터 운영 현황, 인증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치유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① 전문인력 양성 추진 ② 서비스 표준화 ③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 대국민 인식증진 및 홍보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자격 이수 교육과정을 설계, 일정기준을 갖추고 치유활동을 지원하는 해양치유사 국가전문자격제도를 신설 -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시설·장비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 - 치유산업 관계기관 간, 지자체 간 협의회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 지역특성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현재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자격 이수 교육과정을 설계, 일정기준을 갖추고 치유활동을 지원하는 해양치유사 국가전문자격제도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제2절 외로움·고립감 대응 국내정책 진단

### 1. 종합분석

- 현재 국내에서 외로움·사회적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책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복지부, 여가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다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접근 및 수단에 따라 ①치료(Treatment), ②돌봄(Care), ③치유(Healing)로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표 4-10〉 외로움·고립감 대응 국내정책 유형화

구분	주요정책	특징
치료 (Treatment)	- 정신건강서비스(복지부)	- 정신질환 치료, 재활 - 수동적 참여, 정신건강 치료
돌봄 (Care)	- 커뮤니티케어(복지부) - 상담 및 교육서비스(여가부)	- 정신치료-회복 연계 지역사회 돌봄 - 수동적+능동적 참여 혼합, 정신건강 관리
치유 (Healing)	- 문화 및 인문치유(문체부) - 관광치유(웰니스, 치유순례 등)(문체부) - 산림치유(산림청) - 농업치유(농촌진흥청) - 해양치유(해양수산부)	- 스스로 회복하는 자가치유 능력 강화 - 능동적 참여, 자가치유(자립)

- 치료(Treatment)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 대상자는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병원진료 및 약물치료 등의 개입을 통해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치료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돌봄(Care)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커뮤니티케어, 여성가족부의 상담 및 (가족)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정신치료 이후 회복단계에 대한 관리와 가족관계 등 갈등문제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정책대상자는 수동적 혹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치유(Healing)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인문, 관광치유와 산림청의 산림치유, 농촌진흥청의 농업치유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프로그램은 심리적·사회적·신체적으로 취약해질 때 스스로 마음건강을 회복하도록

문화 및 인문적 접촉, 관광활동, 숲과 농업체험 등을 제공하며, 정책대상자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외로움·사회적고립감을 자기치유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2. 치료 : 특정대상 중심, 외로움을 다양한 문제의 원인으로만 규명

- 치료적 정책은 정신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며, 외로움의 문제를 현상의 원인으로만 규명하고 증상으로 나타난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나 재활에 집중하고 있음
- 사회의 개인화·파편화, 각종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외상 경험, 복잡한 사회체계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에 노출될 수 있으나 정신건강(질환) 치료 영역 정책에서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음
  - 외로움은 사회적 현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개인을 찾아 지원하는 것으로는 외로움에 대응할 수 없음,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기존 정책에서는 사전 예방에만 한정하여 진행, 심리 상담을 조기인지·조기 개입, 위험군 발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숲이나 농촌 등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만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보건 영역에서는 정신 건강 영역으로 병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외로움 대응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이나 정신건강 문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다수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정신건강(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중독 등) 고위험자, 정신질환자 등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심리지원, 교육훈련, 자립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하여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
  - 국내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은 25.4%(보건복지부, 2016)로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군이지만,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 있는 대상자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2.2%(보건복지부, 2016) 수준임. 이는 캐나다(46.5%), 미국(43.1%), 호주(34.9%)에 비해 낮은 수준임(국립정신건강센터, 2020; 손지훈 외, 2021에서 재인용)



### 3. 돌봄 :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불충족

- 최근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복지”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나 요양돌봄을 요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체계와 연계하고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돌봄적 접근이 특징임
- 다만 정신건강 돌봄 정책은 가족관계 및 1인가구 대상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회의 개인화·파편화에 따라 1인 가구,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외로움·사회적 고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의 폭과 프로그램을 폭넓게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외로움은 사회적 현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개인을 찾아 지원하는 것으로는 외로움에 대응할 수 없음, 취약계층이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사업 추진 필요
  - 전국민 대상 사업은 사전 예방에만 한정하여 진행, 심리 상담을 조기인지·조기 개입, 위험군 발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여가 등은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악회방지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한계
- 정신건강과 비정신건강을 통합하려는 차원에서 의료-정신의료-복지를 연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때 운동, 음악, 미술, 인문 등의 다양한 매개활동을 통한 치료나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됨
  - 그러나 이러한 문화활동이나 운동처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재함
  - 예를 들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에 일상생활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이 프로그램의 효과나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투입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있는 것은 아님
- 여성가족부 중심, 지역주민·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문화 서비스(1인가구 포함)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외로움·사회적고립감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인문 등 다양한 매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부재. 심리상담과 여가 등을 ‘사회적 치유’의 수단으로 활용

### 4. 치유 : 개별사업 중심, 통합·연계 성과관리 부재

- 외로움·사회적고립감 해소 측면에서 최근 문화예술, 관광, 산림(숲), 농업 및 농촌, 해양 등 분야에 대한 경험, 접촉이 스스로 몸과 마음, 사회적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치유 관점에 집중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부처에서 고유의 정책영역에 치유를 결합한 사업을 추진

- 현대로 접어들수록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 휴양 및 치유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의해 치유를 앞세워 정책화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법제화, 종합계획 수립, 인력양성 등을 추진 중
- 코로나19 장기화가 발생시킨 보편적인 정신보건 문제를 위해서는 특정대상에 대한 정신건강 케어가 아닌(낙 인효과 주의) 모든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마음건강을 회복하는 치유(Healing) 영역이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치유정책은 각 부처의 기존 개별사업을 진흥 혹은 산업지원 자체의 목적이 아닌 국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인데, 현재로서는 각 부처별로 복지서비스와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민치유에 대한 접근과 포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모든 국민들이 겪는 외로움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관계적 치유 방법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은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
- 특히 산림치유, 농업치유, 해양치유는 숲이나 자연, 농촌, 바다(해양)라는 공간에 문화여가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치유정책화한 것으로, 미술·춤·음악 등 콘텐츠를 통해 치유효과를 거두는 문화치유와 결합되었을 때 치유정책으로서 완성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문화 접촉(문화적 활동)이 불안, 외로움, 우울감 등에 완충 효과와 함께 활동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감과 공동체성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학계와 현장에 널리 동의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책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산림치유, 농촌치유, 해양치유는 각각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처 내 치유적 관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문화정책 영역에는 법, 제도가 미흡한 상황
  - 문화치유에 대해 정책화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선 중독자(도박, 알콜 등), 학대피해노인·아동·여성, 재난피해자, 스트레스 위험군 등의 정서적 취약성이 높은 대상군에 대해 문화치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효과를 확인하여 실증경험을 축척이 우선 진행될 필요
  - 더불어 지역밀착형 맞춤형 외로움·사회적고립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커넥터(매개자) 활동영역 및 자격관리가 중요한데, 서비스영역, 매개인력의 역량과 조건, 전달체계에 배치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것임
- 산림치유, 농촌치유, 해양치유는 외로움·고립감 해소에 정서적, 주관적 해소에 효과가 집중된 반면 문화치유는 정서적 효과와 동시에 문화활동을 통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객관적 해소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유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범위가 큼

## 제3절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응 문화정책방안

### 1.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 문화예술기반 정서적(정신적) 치유·사회적 연결을 위한 정책은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여러 부처,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여러 부서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문화접촉 프로그램을 치유와 사회적 연결 성과 관점으로 종합 조정·점검하는데 의의가 있음
- 치유 및 사회적 연결을 위한 정책 접근과 수단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①의료 및 약물치료 지원, ②지역사회 내 돌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③스스로 마음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정책은 치료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나 재활에 집중하거나,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상담, 돌봄에 집중하였다가 점차 보편적인 참여와 자기치유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치유 및 사회적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상당 수요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감하는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접목하거나 전시 및 공연 등 관람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음
  - 산림 안에서 건강증진과 치유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①자연관찰, ②운동프로그램, ③여가프로그램 등 세 가지이고 이를 개발·보급하는 인력인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은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 전공 및 종사자이다 보니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보력을 부족한 상황
  -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치유서비스로 프로그램을 기획·보급하고자 함
  - 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과 치유를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전략을 ①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발굴, ②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 ③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하고 이 중 콘텐츠 발굴에서 지역특화 여가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음

〈표 4-11〉 법정 치유프로그램의 구성요소(콘텐츠)

산림치유	농업치유	해양치유
①자연관찰 ②운동프로그램 ③여가프로그램	①식물 ②동물 ③농작업활동 ④웰빙음식 ⑤농촌문화	①해양치유자원을(갯벌, 염지하수, 해양 생물 등) 활용 특화 프로그램 ②산림·농촌의 치유시설이나 미술·음악·심리치료 등 타 분야와 연계 프로그램

- 외로움 사회적이고립감 대응 정책 분산추진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와 업무협업 필요하고, 개별부처 정책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연계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며, 특히 공통적인 정책수단으로 문화접촉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적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는 정책 주요의제 단위가 아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써 부분적으로 접근되고 있음
  - 현재보다 문화예술접촉과 치유, 사회적 연결 효과에 대한 정책 전략을 명확히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사회 현상과 문화적 접촉 수준을 진단하고 원인과 영향 파악을 위한 지표개발, 조사 및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며,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협업사업 발굴 및 사례관리, 인식개선 역할이 부여되어야 함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로움, 고독감, 사회적 연결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 수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향식(bottom up) 계획 기반도 기대할 수 있음

〈표 4-12〉 외로움 및 사회적이고립 관련 조례제정 지자체 현황

구분	사회적 고립	외로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2),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2),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진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수성구	수성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울주군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포천시, 양평군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2), 속초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충청북도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태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정읍시	군산시
전라남도	광양시, 담양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상주시, 문경시, 영양군	
경상남도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통영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 ( )의 숫자는 관련 조례가 다수인 경우 조례 개수를 의미하며, \*는 사회적이고립과 외로움이 하나의 조례인 지자체를 의미함

## 2. 문화예술기반 외로움·고립감 치유인력 관리

- 사회전반에 치유기능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상담, 산림, 농림, 해양 등 여러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영역의 기능에 치유적 기능을 접목 활용하여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고, 치유인력에 대한 자격을 국가단위에서 관리하여 치유서비스 질관리를 중요한 영역으로 검토하고 있음
- 반면 문화예술 정책에서 외로움·사회적고립감 치유는 치유효과 및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제 단위로 설정되지 못하는 뿐더러 교육사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설계되지 못한 채 매년 공모사업 형태로 프로그램 제공자(치유인력)를 결정하고 있음
- 국내에는 예술치료 혹은 예술상담에 대한 다양한 민간자격증이 개설되어 있는데, 주로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예술을 접목한 상담을 통해 자존감 회복, 심리적 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은 약 2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취득조건의 난이도 편차가 커 예술치유 제공자로서의 활동은 자격증보다 관련경력이 고려되고 있음
-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의 상당 수요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감하는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접목하거나 문화예술 접촉 프로그램을 연계하고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기반 치유인력에 대한 자격관리가 필요함
- 즉 치유나 사회적 연결을 위해 정책영역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문화예술접촉 경과를 관리하고 예술치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연결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연결인력은 Link Worker, Community connector 등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 혹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문화예술 활동을 해야하는지,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을 의미함
- 양성된 인력은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돌봄체계(보건복지부, 지자체 주도), 가족 및 1인가구 대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주도), 산림치유(산림청), 해양치유(해양수산부), 농업치유(농촌진흥청)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때의 인력은 그동안 정부주도로 양성한 문화예술 매개인력을 재교육하여(문화예술교육사, 지역문화전문 인력 교육 이수자 등) 사회적 연결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임

### 3.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의 외로움·고립감 성과관리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은 다양한 정책수단 및 접근으로 완화될 수 있는데, 문화예술기반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화접촉이 치유 및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축척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WHO 보고서에 따르면 3,000개 이상 연구에서 예술이 질병예방, 건강증진, 질병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Fancourt, D. and S. Finn, 2019), 이는 예술 및 문화 활동과 건강, 웰빙 간의 관계를 임상연구로 입증함에 따라 치유를 목적으로 한 문화정책에 대한 증거기반이 되고 있음
  - 노인의 예술 및 문화 참여는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킴에 따라 의료비용을 줄이고 입원 및 의료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어린이의 예술 및 문화 참여는 정서 발달을 향상시킴

〈표 4-13〉 문화적 개입을 통한 건강증진 영역(예방 및 치료)

예방 및 증진	관리 및 치료
사회적 결정 요인 - 사회적 결속 - 사회적 불평등	정신 질환 - 태아기 정신질환 - 경증~중증 정신 질환 - 심각한 정신 질환 - 트라우마 및 학대
아동 발달 -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 - 말과 언어 - 교육이수	급성 질환 - 미숙아 - 입원치료 - 수술 및 침습적 시술 - 집중치료
간병 - 건강에 대한 이해 - 임상 기술 - 웰빙	신경계단 및 신경계 장애 - 자폐증 - 뇌성마비 - 뇌졸중 - 기타 후천성 뇌손상 - 퇴행성 신경학 - 장애 - 치매
질병의 예방 - 웰빙 - 정신 건강 - 트라우마 - 인지능력 저하 - 노쇠 - 조기 사망	비전염성 질병 - 암 - 폐 질환 - 당뇨병 - CVD
건강 증진 행동 - 건강한 생활 - 건강관리 참여 - 건강 커뮤니케이션 - 건강 관련 낙인 - 접근하기 어려운 그룹과 교류	생애말기 돌봄 - 완화치료 - 사별

자료: Fancourt, D. and S. Finn (2019), What is the evidence on the role of the arts in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A scoping review. Health Evidence Network Synthesis Report, No. 67, Copenhagen: World Health Organisation(WHO).

- 이에 외로움 및 사회적연결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주요 문화정책 및 핵심사업에 지표를 적용하여 문화정책을 정서적 치유 및 사회적 연결 관점에서 성과를 관리하고, 정책의사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척할 필요가 있음
- 사례로 2021년 영국 DCMS가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내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5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외로움과 고립감, 웰빙 관련 효과를 측정한 지표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4〉 문화예술 활동과 외로움, 사회적고립, 웰빙 간의 관계 주요 지표(DCMS 사례)

구분	설문항	척도
관계맺기 및 관심사항 일반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취미나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li> <li>-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li> <li>- 새로운 예술이나 문화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li> <li>- 새로운 그룹이나 클럽에 가입했다.</li> <li>-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예: 비디오, 텍스트, 디지털).</li> <li>-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예: 연락하는 사람).</li> <li>- 자원봉사를 맡았다.</li> <li>- 새로운 것을 시도할 자신이 더 생겼다.</li> <li>-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다.</li> </ul>	해당 사항 모두 선택
사회적지지 관련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이웃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하다고 느낀다.</li> <li>-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 있어줄 사람이 더 많아졌다. (‘도움’이란 예술 활동을 돕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친구, 가족을 통한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의미)</li> <li>- 만약 내가 함께 있고 싶거나 사교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li> </ul>	동의도 5점척도
외로움 관련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스스로 동료애가 부족하다고 덜 느낀다.</li> <li>- 나는 소외감을 덜 느낀다.</li> <li>-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감을 덜 느낀다.</li> <li>- 나는 외로움을 덜 느낀다.</li> </ul>	동의도 5점척도
웰빙 관련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나는 내 삶에 더 만족감을 느낀다.</li> <li>- 전반적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더 가치있다고 느낀다.</li> <li>- 전반적으로 더 행복하다.</li> <li>-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덜하다.</li> </ul>	행복감 10점척도

주: 문화예술활동 참여 이후 변화에 대한 응답임

자료: Arts Council England(2021), Impact of creative & cultural activity during the pandemic on loneliness, isolation & wellbeing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본 연구는 국내 정책에서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혹은 사업단위를 살펴보고 정책사각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제언하였음
- 연구는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3개월의 기간동안 현안연구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분야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의의를 거두고는 있으나 실제 정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후속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우선,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응 컨트롤타워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사회적고립감의 '예방' 측면의 정책중요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논의가 필요하고, 문화예술과 외로움·사회적고립감 완화 효과 혹은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증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문화예술기반 외로움·고립감 치유인력은 인력의 자격기준, 활동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의 관련 인력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인력 및 사례관리 전담을 위한 조직운영(중앙 및 지역 센터)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외로움·고립감 성과관리는 지표개발과 문체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효과를 우선 파악해 볼 것을 제안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정책에 대해 외로움, 사회적 연결,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 긴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향후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 보건복지부(2022).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2020).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5-247.
- 손지훈·백종우·배지혜·서화연·이해우·장미·최희승·권도현(2021).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자료집)」.
- 이상훈(2020). 정신건강인력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82, 43-54.
- 최보연(2019). 고독해결을 위한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확산과 문화정책적 함의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6(1), 233-268.
- 통계청(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 한국행정연구원(2022). 「사회통합실태조사」
- Arts Council England(2021), *Impact of creative & cultural activity during the pandemic on loneliness, isolation & wellbeing*.
- Beller, J., & Wagner, A. (2018). Loneliness, social isolation, their synergistic interaction, and mortality. *Health Psychology*, 37(9), 808-813
- Calati, R., Ferrari, C., Brittner, M., Oasi, O., Olié, E., Carvalho, A. F., & Courtet, P. (2019).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nd social isolation: a nar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5, 653-667.
- Hawkey, L. C., & Capitano, J. P. (2015). Perceived social isolation, evolutionary fitness and health outcomes: A lifespan approach.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70, 20140114.
- House of Commons Library(2021). *Tackling loneliness*.
- Myung Hyun Kim, Ji Hyun An, Hye Rin Lee, Seo Hyun Jeong, Soo Jin Hwang, and Jin Pyo Hong(2021).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Mental Health Status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 18(7), 652-660.
- OECD(2005). *Society at a Glance 2005 : OECD Social Indicators*.

- Perlman, D., & Peplau, L.A. (1981)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In: Duck, S.W. and Gilmour, R., Eds., *Personal Relationships in Disorder*, Academic Press, London.
- Peytrigent, S., Garforth-Bles, S., & Keohane, K.(2020). *Loneliness monetisation report: Analysis for 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 UK Government(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 UK Government(2020). *Loneliness Annual Report: The First Year*.
- UK Government(2021a). *Loneliness Annual Report: The Second Year*.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second-year/loneliness-annual-report-january-2021>
- UK Government(2021b). *Emerging Together: the Tackling Loneliness Network Action Plan*.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merging-together-the-tackling-loneliness-network-action-plan/emerging-together-the-tackling-loneliness-network-action-plan>
- Wang, J., Lloyd-Evans, B., Giacco, D., Forsyth, R., Nebo, C., Mann, F., & Johnson, S. (2017). Social isolation in mental health: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review.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2(12), 1451-1461.
- 内閣官房(2021). *孤独・孤立対策の重点計画(고독·고립대책의 중점계획)*.

#### 웹사이트

- OECD Better Life Index :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http://www.nihhs.go.kr/usr/persnal/Healing.do?nongsaroMenuId=PS04325>
- 산림청 [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06\\_01\\_01&cmsId=FC\\_001569](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06_01_01&cmsId=FC_00156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https://www.arte.or.kr/business/society/healingprogram/intro/index.do>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3장 일부, 제4장 일부, 연구총괄

### 공동연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4장 제1절~제2절 일부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4장 제1절 일부

### 연구자문

김민경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제3장 제1절 일부

이학준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2절 일부

##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

발행인 김대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5월 14일  
발행일 2022년 5월 14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120-2 93300

D O 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01>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정보람 외(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 2669 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